FULLER
THEOLOGICAL SEMINAR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Digital Commons @ Fuller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Korean Studies Center

5-5-2014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교회 행정

Eun Woo Lee 이은우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dmin

Part of the Missions and World Christianity Commons

Recommended Citation

이은우,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교회 행정." 박사학위논문, 풀러신학대학원, 2014.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CHURCH ADMINISTRATION FOR RECOVERY OF CHURCH COMMUNALITY

written by

EUN WOO 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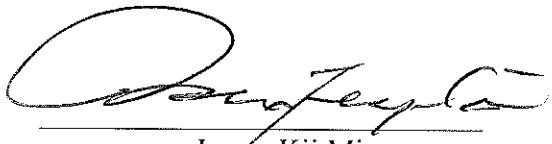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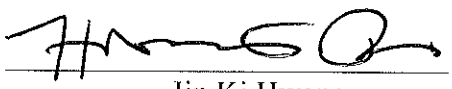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Jeong-Kii Min



Jin Ki Hwang

May 5, 2014

CHURCH ADMINISTRATION FOR RECOVERY OF CHURCH COMMUNALITY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EUN WOO LEE

MAY 2014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교회 행정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민 종 기 교수

이 은 우

2014년 5월

Abstract
Church Administration for Recovery of Church Communality
Eun Woo Lee
Doctor of Ministry
2015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As church membership has grown, particularly in metropolitan areas, it has been creating various invisible spiritual problems. Since the church has been focusing all its attention on outward growth, it has been secularized, losing its essence of community as the body of Christ, crippled by individualism, materialism, and the prosperity gospel. By definition the church is an organic gathering of believers in unity, a community of the people of God sharing life due to the salvific headship of the Lord Jesus Christ. Therefore, recovering the communality of the church is recovering its essence. In order to accomplish such a recovery, this paper has researched church administration based on the organizational nature of the church, using various domestic and foreign resources.

Chapter 1 presents the introduction. Chapter 2 discusses the community essence and purpose of the church, surveys factors contributing to the loss of communality, and suggests the importance of recovery of community for church growth. Chapter 3 examines church administration for recovery of communality first through word study and critique of known principles, then by exploring biblical examples of church administration. Church administration and secular administration are compared and contrasted. Chapter 4 analyzes the current trends in church administration and its problems to demonstrate the need of proper church administration for recovering church communality. Chapter 5 confirms the need for proper church administration for recovering church community via the case study of a church operating successfully in its administration.

Chapter 6 claims that proper church administration requires an administrative structure organized in small groups and stresses the importance of pursuing biblical church administration as well as general awareness of church administrative principles. Consequently, this chapter argues that administration for communality involves the laity's right understanding of faith, spiritual growth, life centered on God, and maturity of faith, and it indicates the pastor's role as an effective administrator. In conclusion, chapter 7 summarizes the arguments made and implications of the research findings: the essence of the church is its identity as the body of Christ, the people of God, and the family of God; appropriate church administration is required to recover church communality; serious research of church administration must continue, and its results be taught to seminarians and pastors regularly.

Theological Mentors: Jeong-Kii Min, PhD
Jin Ki Hwang, PhD

감사의 글

먼저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풀러 신학교에서 학업과 연구의 기회를 통해 배움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이 논문이 출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부족하지만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잊을 수 없지만 특별히 세심하고 자상하게 논문을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민종기 박사님과 황진기 박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목회자로 헌신한 후 지난 20여 년 동안 부교역자로 교회를 섬기면서 안타깝게 생각했던 문제가 교회내의 행정적인 문제였는데,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 행정적인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었던 일을 더 큰 문제로 만들어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아쉬움을 풀러 신학교에서의 배움과 이 논문을 통해 나름대로 교회행정에 대해 생각해보며 고찰할 수 있어서 좋았고, 앞으로 목회현장에서 바른 교회행정을 세워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언제나 신실하게 저의 옆자리에서 논문을 쓰는 동안에도 항상 기도하며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해 준 아내 은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아빠를 위해 기도하며 노래를 불러주었던 사랑스런 아들 상혁이와 딸 루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저를 위해 늘 기도하며 아낌없는 후원자로 든든한 힘이 되어주시는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5년 3월 이은우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 동기와 목적 ····· 1
제 2 절 연구 방법과 범위 ····· 5

제 2 장 교회 공동체성과 성숙 ····· 8
제 1 절 교회 공동체적 본질 ····· 8
1. 그리스도 몸으로서의 교회 ····· 9
2.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교회 ····· 10
3. 하나님 가족으로서의 교회 ····· 12
제 2 절 교회 공동체의 목표 ····· 13
1. 성숙 ····· 13
2. 조화 ····· 16
제 3 절 교회 공동체성 상실의 문제 ····· 17
1. 공동체가 해체되는 상황적 영향 ····· 18
2. 현대사회의 종교관 변화 ····· 21
3. 교회의 공동체적 대항문화 약화 ····· 22

제 3 장 성경적 관점에서 본 교회행정 ····· 27
제 1 절 교회행정의 단어적 고찰 ····· 27
제 2 절 교회행정의 정의 ····· 30
제 3 절 교회행정의 원리 ····· 32
1. 교회행정의 기본 원리 ····· 33
2. 교회행정을 위한 조직 원리 ····· 35
3. 교회행정의 성서적 원리 ····· 37
제 4 절 교회행정의 절차 ····· 39

1. 필요성 인식 ····· 40
2. 계획 ····· 40
3. 조직 ····· 41
4. 실천 ····· 41
5. 평가 ····· 42
제 5 절 성경에 암시된 교회행정의 사례들 ····· 42
1. 구약에 나타난 교회행정 ····· 43
2. 신약에 나타난 교회행정 ····· 46
제 6 절 교회행정과 일반 행정의 차이점 ····· 49

제 4 장 교회행정의 필요성 ····· 53
제 1 절 교회행정의 현 상황과 문제점 ····· 53
1. 교회행정의 현 상황 ····· 54
2. 교회행정의 구조상 문제점 ····· 58
가. 교회행정 ····· 58
나. 교회재정 ····· 60
(1) 교회재정의 특징 ····· 61
(2) 교회재정 운영의 문제점 ····· 62
다. 권위적 구조 ····· 63
제 2 절 교회행정의 필요성 ····· 65
1. 교회행정은 교회 공동체를 효율적이게 한다. ····· 65
가. 예배 ····· 66
나. 선교 ····· 67
다. 교육 ····· 68
라. 봉사 ····· 68
2. 교회행정은 공동체를 견고히 한다. ····· 69

제 5 장 공동체적 교회행정을 위한 사례연구 ····· 72
제 1 절 지구촌교회 ····· 72
1. 목회철학 ····· 73
2. 선교행정이 체계화 되어 있는 교회행정 ····· 74
3. 평가 ····· 77
제 2 절 만나교회 ····· 77
1. 목회철학 ····· 78
2. 교육행정이 앞서 있는 교회행정 ····· 79
3. 평가 ····· 81
제 3 절 분당우리교회 ····· 82
1. 목회철학 ····· 82
2. 인터넷 행정이 잘 되어 있는 교회행정 ····· 84
3. 평가 ····· 86

제 6 장 공동체적 교회행정을 위한 제안 ····· 87
제 1 절 공동체적 교회행정의 조직 제안 ····· 87
제 2 절 공동체적 교회행정의 발전을 위한 제안 ····· 89
1. 성경적인 교회행정 추구 ····· 89
2. 교회행정 원리에 대한 철저한 인식필요 ····· 90
3. 교회의 본질을 성취하는 교회행정 추구 ····· 91
제 3 절 공동체적 교회행정의 목표와 나아갈 방향 ····· 93
1. 기독교 신앙 이해와 영적 성장 ····· 93
2. 하나님 중심적인 삶 ····· 94
3. 교회와 성도의 신앙 성숙 ····· 96
제 4 절 공동체적 교회행정을 위한 행정가로서의 목사 역할 제안 ····· 98
1. 행정가로서 목회자의 자질 ····· 98
2. 담임목사와 부목사의 행정적 역할 ····· 99
가. 담임목사로서의 행정적 역할 ····· 100

나. 부목사로서의 행정적 역할 101

제 7 장 결 론 103

참고 문헌 107

Vita 113

그 림 목 차

<그림 1> 분당우리교회 홈페이지 85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동기와 목적

현시대의 교회를 진단해 보면 근대화의 물결을 받아오면서 여러 사회학적인 원인들과 함께 폭발적인 교회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교회의 대형화가 이루어졌다. 교회의 대형화가 교회성장 측면에서는 환영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교회 본질을 생각해 볼 때 외적 성장만을 추구하는 것은 교회가 자신의 존재 의미를 상실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교회의 대형화에 따른 문제점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본질을 외면한 채 외적 성장만을 추구함으로 상대적 교회 구성원들 간에 교제의 빈곤감을 증폭시킨 것이다. 교회의 모든 관심이 질보다는 수와 양에 치중하여 교세확장, 건물확대, 재정확대에 여념이 없게 되자, 성도의 친교는 항상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다. 물론 성도 교제의 침체원인을 교회의 외적 성장 자체에서만 찾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외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1)]

그러나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의 내적 성숙을 외면한 채 외적 성장만 추구한다면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개인주의, 물질주의, 물량주의, 기복신앙 등으로 교회의 세속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교회가 이 세대의 문화를 변혁하거나 주도하기보다는 이 세대의 문화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실제적으로 오늘날 교회의 대형화로 많은 대형 교회들 속에서 세속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교회의 세속화로 목사의 권위와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졌

1) 문석호, *한국교회와 공동체 운동* (서울: 줄과 추, 1998), 37.

고, 교회는 세상을 향한 정신적, 사회적 영향력을 상실했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자녀보다 더 세속적인 타락 현상을 보이고 있다.[2)]

이렇게 세속화된 교회는 그 자신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대하여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교회는 사회적 고난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안위와 이익만을 생각한다. 교회로서 영적 능력과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력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속화된 교회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교회를 향한 불신자들의 부정적인 평가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공격성이 강해지고 있다. 각종 언론매체에서 교회의 잘못이나 목회자들의 잘못된 행동에 관한 뉴스가 나오면 마치 좋은 먹이를 발견한 사자가 손살 같이 달려가 먹이를 낚아채는 것처럼 교회를 향한 온갖 비난과 부정적인 말을 퍼부으며 폭력적인 행동까지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3)]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교회가 양적으로 몸집만 커졌을 뿐 예수 그리스도가 원했던 참된 교회의 모습과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교회의 본질과 생명력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교회가 공동체성을 상실해 버렸다면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실감 있게 세상에 보여 줄 수가 없는 것이다. 성도간의 사랑의 교제가 없는 신앙의 모습은 더 이상 참된 기독교 신앙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4)]

이처럼 교회들이 공동체성을 상실해 가고 있는 몇 가지 원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름뿐인 크리스천을 배출함에 있다. 현대 교회에서 특히 한국 교회는 선교사들의 복음 전파이후 질적 성장보다는 외적 성장에만 너무 치중하였다. 그 결과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 모으는 데는 성공하였을지 모르지만, 데려온 사람들을 제대로 회심에 따른 신앙인이 되도록 이끌어 주지 못했다. 이것은 자연히 교회와 세상에 이름뿐인 크리스천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자들은 결국 교회 안에서는 신앙인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세상에서는 전

---

2) 류장현, *포스트모던 사회와 교회* (서울: 프리칭아카데미, 2006), 80-81.
3) 류장현, *포스트모던 사회와 교회*, 91.
4) 김현진, *공동체 신학* (서울: 예영코뮤니케이션, 2000), 6-11.

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진정한 회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며 남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까지 하다 보니, 교회 공동체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작은 시험이나 세상의 물결에 쉽게 흔들려 버리고 무너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둘째, 신앙의 개인주의화이다. 현대 교회의 큰 문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신앙의 개인주의는 교회공동체의 본질과 정신, 신앙을 훼손하는 것이다.[5] 한국 교회는 그동안 빠른 성장을 이루어 왔다. 하지만 빠른 성장에 비해 성도들의 신앙의 균형을 제대로 세워주지 못하였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집중적으로 강조함으로 형제애 대한 사랑, 진정한 교제, 섬김이 결여된 채 방치해 놓았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것만이 기독교의 전부라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었다.

신앙의 개인주의화는 교회가 개인 구원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면에서는 뛰어난 영성을 갖게 했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면에서의 신앙은 소홀히 하여 교회의 공동체성 상실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신앙의 개인주의화는 교회 구성원들 간에 옆에 있는 형제는 어떠하든지, 다른 교회들은 어떠하든지 상관없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셋째, 인격 변화의 부재이다. 한국 교회에 몸담고 있는 대부분의 평신도가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지 못해 불신자와 차별성을 보이는데 실패하고 있다. 기독교의 생명은 신앙이 인격과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데 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곧바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6]

한국 교회는 빵과 건강을 얻기 위해 예수님 주변에 모여 드는 무리들은 많은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들을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 이것은 바로 교회가 성도들에게 인격 변화를 이루게 하는데 실패한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인격 변화의 부재는 자연히 교회 공동체의 약화를 가져왔다.

넷째, 편향된 사역 구조이다.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 교회는 교세와 부흥의 화려한 유산의 외적인 축복이 있었다. 반면 교회 구조상의 잘못으로 비생산적이고 세상을 품을 수 없이 자체 문제에만 메달리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이게 되었다. 교회의 구조

5) 이성희, *미래 사회와 미래 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172-174.
6)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29.

적 잘못은 교회가 계급화된 것이다. 잘못된 교권주의 때문에 교회 내에 신분의 차별화와 권한의 차별화가 생겨났다.

만인제사장을 주장하던 개신교회가 점점 더 제사장화 되고 목사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변해 가고 있다. 교회의 직분은 높고 낮음의 위계적인 질서 구조가 아니라, 기능적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는 유기체적인 협력 구조이다.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라는 순서의 계급 구조는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발상이다. 교회에서 심김을 받고 높임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오직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뿐이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지체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직분을 계급 구조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7]

이처럼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교회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를 변화시켜야 할 교회가 거꾸로 사회로부터 개혁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교회의 위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셨던 공동체로서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도화, 세속화되어 공동체성을 상실해버린 교회의 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다.[8]

이런 가운데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몸부림이 많은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희망적인 일인지 모른다. 교회 갱신을 부르짖으면서 공동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여러 시도를 목회 현장에서 활발하게 해 나가고 있다. 이것은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갱신하는 길이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두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듯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는 교회가 하나의 조직체란 사실이다. 어떠한 조직체를 막론하고 그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고 목적을 완수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관리와 행정이 필요하다.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불러 모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로서 하나의 조직체라 볼 수 있기에 행정과 조직이 필요하다.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라도 교회행정을 무시할 수 없다.

---

7) 최승호, *21세기 한국교회의 비전* (경기: 대장간, 1998), 29-30.
8) 정재영, "한국교회 소집단운동의 공동체성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2.

따라서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경적 원리에 근거한 교회행정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다른 사회와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이다.[9] 그러므로 본 논문은 성경적인 교회의 공동체성이 무엇인지를 먼저 규명하고, 교회에서 실제적이고도 현실성 있는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교회행정 측면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것은 자연히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교회의 모습을 그림으로써 교회 안으로는 갱신을 이루는 대안으로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밖으로는 세상에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보여 줄 것이다. 교회에서의 상실된 공동체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세상에 어떠한 공동체보다 압도하는 능력을 회복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제시해 주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는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제 2 절 연구 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현 한국교회가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상실해 가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에 두고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방안을 교회행정 측면에서 전개하려고 한다. 현 시대의 교회에 주어진 많은 문제점을 극복하는 단초는 교회의 본질 즉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다.

교회의 본질에 대한 실존적인 모습이 무엇인가를 살피기 위해서는 교회의 본질로서의 성도의 교통에 주목해야 한다. 사도시대의 교부들은 일반적으로 교회를 성도의 교통 곧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 인간을 자신과 연합시키며 성도들에게 참 믿음을 주셔서 서로 연합시킴으로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개념을 가졌다.

이것이 로마 가톨릭에 와서는 조직체로서의 가시성을 강조하다 보니 제도적인 교회의 외형을 통한 성도의 교통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성도의 교통은 성령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교황의 권위에서 하나로 이루어지는 교통을 강조

---

9) Alvin Lindgren, *교회개발론 (Foundation for Purposeful Church Administration)*, 박근원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5), 33.

함으로 교회의 진정한 유기체성을 상실하였다.

그래서 종교 개혁가들은 이와 같은 로마 가톨릭의 교회관을 버리고 교회를 영적 유기체로 관심을 집중시켰다.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외형적인 조직체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통에서 찾아야 한다는 진리를 맨 앞자리에 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인 성도의 교통을 현대 교회에서 상실해 버렸다.

현대 교회가 제도적이고 외형적인 교회론에 몰두하는 동안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되고 성도를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시키는 성도의 교통의 소중함을 놓쳐 버렸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고 능력 있는 교회로 세상에 대해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본 논문은 교회의 본질 중 하나인 교회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 중 교회행정 측면에서 그 방법을 찾고자 한다. 교회는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것처럼 체계적이면서도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변화를 앞서가는 행정을 준비해야 한다. 교회 행정은 직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지도를 위해 조직과 운영의 합리화, 과학화를 위해 대형교회 뿐만 아니라 중소형 교회에서도 교회 성장과 안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즉 모든 교회에서 교회 행정에 대한 행정체계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교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렇기에 교회행정도 그에 맞는 변화와 안정적인 체계가 필요하다. 법적으로 교회라고 하면 법인인 교회 즉 교단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단적인 행정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지만, 교단의 행정은 각 교단 행정 담당자들이 행정에 대한 연구를 해 주기를 바라고, 본 논문에서는 개교회의 범위 안에서 행정에 대해 논할 것이다. 연구의 범위를 지교회의 행정을 다루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교회성장의 틀이 될 수 있는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교회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살피는 목적으로 제 1장은 서론부분으로 현 교회에 공동체성이 상실된 몇 가지 요인을 살핌으로 현 교회에서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본질적인 부분들을 다시 확인하며 본 연구의 동기와 목적, 방법과 범위를 제시한다.

제 2장에서는 교회 공동체성의 본질과 목표, 공동체성 상실의 문제점들을 논함으

로 교회 성장을 위해서 공동체성 회복이 중요함을 살피고자 한다.

제 3장에서는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교회행정을 성경적 관점에서 논하고자 한다. 그래서 먼저 성경적 관점에서 본 교회행정의 단어적 고찰과 정의, 원리 등을 살펴보고, 성경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행정이 이루어졌는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암시된 교회행정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교회행정과 일반 행정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제 4장에서는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교회가 행정을 필요로 하는 이유에 대해 논함에 있어서 먼저 교회행정의 현 상황과 문제점을 살핌으로 무너진 교회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교회행정이 필요함을 논하고자 한다.

제 5장에서는 공동체적 교회행정을 위한 사례연구를 통해 교회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잘 운영되고 있는 교회의 행정을 엿보고자 한다.

제 6장에서는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공동체적 교회행정을 위한 제안으로 성경적인 교회행정, 바람직한 교회행정을 추구할 것을 밝히고 앞으로 공동체적 교회행정의 목표와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끝으로 제 7장 결론에서는 전체적인 논술을 요약하고 이에 따른 연구 결과를 밝히면서 제언으로 마치려 한다.

제 2 장
교회 공동체성과 성숙

최근에 들어와서 교회론에 대한 관심과 성경적 교회로서의 이른바 건강한 교회에 대한 열망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인식 부족과 오해로 인하여 교회 정체성에 대한 혼란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 교회 공동체의 본질과 목표를 살펴보면서 세상에 대한 교회의 진정한 사명과 본질을 생각해보고 현대 교회의 공동체성 상실의 문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교회 공동체적 본질

교회는 조직체적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성도간의 연합된 하나의 유기체(organism)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은사와 초자연적 능력을 공급받는 유기체(organism)이다. 그리고 교회를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파악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함께 삶을 나누는 공동체적 관점을 가지고 보아야 한다.[10]

이와 같이 교회에 대한 본질적인 재조명은 오늘날 교회 갱신 혹은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답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교회론적 관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는 작업은 공동체적 교회 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신학적 조명을 가져다 줄 것이다.

---

10) 박영철, *셀교회론* (서울: 요단출판사, 2006), 150.

1. 그리스도 몸으로서의 교회

교회의 본질에 관한 표현은 유기체(organism)로서의 교회이다. 교회의 본질이 유기체라는 말은 곧 교회가 생명체라는 말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살아 있는 실체(living reality)이며, 그 몸은 마치 육체가 성장하듯 탄생으로부터 시작하여 계속적으로 성장한다는 말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 속에는 교회 구성원 상호간의 상호의존적 관계성을 강하게 내포한다. 마치 우리 몸의 각 지체가 몸에 붙이 있어 몸을 중심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결정적으로 필요한 존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바울은 교회의 본질에 관한 정의를 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 간의 관계를 몸과 머리의 비유로 들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면서 주의 만찬 때 떡을 떼어 먹고 잔을 같이 나누어 마시는 행동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모든 성도들이 한 몸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11]

또한 에베소서를 통하여 남편과 아내의 깊은 사랑의 관계에 비유하여 그리스도가 교회를 그와 같이 사랑한다고 하였다. 특히 에베소서 4장 12절[12]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단순히 존재론적 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실하고 성장케 한다는 동적인 관계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바울의 교회론에서 새롭게 선택되어 삶을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것이며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칼빈은 교회를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하였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사랑에 의해 양육되고 성장하는 것처럼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몸에 접맥되어 말씀과 성례와 성령의 사역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되는 것을 의미한다.[13]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성장할 뿐만 아니라 모든 지체를 하나로 묶어 준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는 서로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다.

---

11) 이종성, *교회론* (서울: 한국기독교학술원, 2001), 49.
12) 에베소서 4:12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3) John Calvin, *기독교강요 제4권*, 김종흡외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7.

교회는 결코 하나의 기구로서 파악되지 않고 살아 있는 유기체적인 인격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 정초되는 공동적 삶으로서 파악된다.[14]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된 사람들의 친교 공동체이다. 성도간의 사귐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기능으로 발휘되고 있다.

또한 교회를 성만찬 공동체라고 하는데, 이 성만찬이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 중의 하나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한 몸이 되고 한 형제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점이다. 즉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한 떡을 통하여 한 몸으로 결합되는데, 그 떡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다. 주의 몸을 받음으로써 공동체 자신이 한 몸으로 나타나며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이러한 성만찬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로 구체화된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는 그리스도가 육체적으로나 문자적으로는 아니지만 영적이며 신비스럽게 현존하고 있다. 따라서 몸으로서의 교회는 단순한 인간들의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 된 하나님의 백성 상호간에 그리고 세상과 새로운 관계질서를 맺는 인간 공동체인 것이다.[15] 즉 성육신적인 관점에서 교회는 교회를 통하여 현존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신비하지만 현실적인 방법으로 유업을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이다.

2.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교회

하워드 스나이더(Howard A. Snyder)는 교회를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다.[16] 신약성경에서 교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물론 그 이상의 의미가 있지만 교회는 이 개념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것은 백성으로 예배하게 하며 신학을 가지게 하고 사명을 수행하게 하여 영적인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다.

---

14) Hans Küng, *교회란 무엇인가 (Was Ist Kirche?)*, 이홍근 역 (서울: 분도출판사, 1978), 63.
15) Robert E. Webber, *복음주의란 무엇인가? (Common Roots)*, 홍성국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9), 50.
16) Howard A. Snyder, *그리스도의 공동체 (The Community of the King)*, 김영국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2), 71.

교회의 기원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이루는 행위 안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하나님은 인류에 대한 구속사역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류의 대표로 뽑아 그들과 계약을 맺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맡게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역을 위해 백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의 결과이다.[17]

이러한 구약에서의 백성의 개념은 종말론적 개념으로 이해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칭되고 있다.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은 신약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18] 신약 전체를 통해서 교회는 구약에서의 백성과 연관을 가진 말로써 지칭되고 있다. 교회는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아브라함의 자손, 남은 자, 택함을 받은 자 등으로 불리고 있다. 그래서 교회 생활도 이스라엘 생활과 종종 비교되어 그리스도인들은 출애굽 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취급되고 있다.

또한 교회는 목표를 향해 순례하는 백성이다. 그것은 삶의 목표를 다시 돌아갈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교회는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인격적 행위를 증인하는 백성으로서 부름 받았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보여준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공동체와 그 삶에서 발생하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증인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것이 교회를 증인하는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복음이다.

이와 같이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백성들의 공동체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교회의 정의는 교회를 본질적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 부름 받았기 때문에 세상과 같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다.

---

17) 이종성, *교회론*, 30-31.
18) 누가복음 1:17,68,77, 누가복음 2:10

3. 하나님 가족으로서의 교회

교회 본질과 관계된 또 다른 성경의 중요한 표현은 하나님의 가족이다.[19] 하나님의 권속으로도 번역된 이 표현은 영어로는 'family of God', 'household of God'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러한 표현들은 교회가 영적 가족으로서의 본질적 실체임을 나타내준다. 또한 하나님의 가족을 말할 때 'family'뿐만 아니라 'household'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단지 혈연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에 의해 당시의 일꾼, 노예, 수공업 노동자 등 모든 가속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었던 확대된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가족을 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혈연, 지연, 신분, 출신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하나님 가족이라 말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져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20]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족 관계만큼 가깝고 친밀한 관계는 없다.

교회가 가족이라는 말은 구성원들이 영적 혈연관계를 가진다는 말이며 서로 떨 수 없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교회본질은 단순한 사람들의 사랑의 모임이 아니라 함께 삶을 나누며 함께 삶의 의존관계를 통하여 서로 세워주며 서로의 성장을 위해 서로 기여하는 상호절대 의존성을 지닌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비유법이 아니라 직설적인 선언이다. 직설법은 그 내용이 실체라는 말이며, 비유법은 실체는 그것이 아니지만 그 본질적 성격이나 내용이 유사하다는 말이다.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과 같은 것'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한 것이다. 따라서 교회의 본질은 영적 가족으로서의 실체이며 이러한 영적 혈연관계는 육신의 가족관계 이상의 중요성을 지닌다. 즉 교인들은 모두가 가족관계로 맺어져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인종과 연령, 성별 등을 모두 초월한 신성한 가족관계 및 공동체성을 맺고 있다는 말이다.

---

19) 에베소서 2:19, 디모데전서 3:15
20) Snyder, *그리스도의 공동체*, 73.

제 2 절 교회 공동체의 목표

교회는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로 표현해 왔다. 교회는 각각 입장에 따라 예배하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 사회 활동을 위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해왔다.[21] 그러나 신약 성경어디에도 이러한 것이 본질적인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이유라고 말하지 않는다.

예배, 전도, 선교, 봉사 등은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중요한 기능들임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들은 공동체 모임의 결과물들이지 근본적인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 초대 교회의 예배에 대해 살펴보아도 모든 장소, 모든 시간이 예배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예배 자체만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 모여야 한다고 말할 수 없었다. 또한 전도가 교회의 일차적인 목적도 아님을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평하지 않고 다투지 않는 삶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만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전도 또한 모임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예배, 전도, 선교, 봉사가 교회의 중요한 기능을 차지하지만 교회 공동체의 1차적 목표는 아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의 1차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바로 성숙과 조화이다.

1. 성숙

교회 공동체의 1차적 목표는 성숙이다. 성숙이 교회 공동체의 목표라는 것을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부어주셨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부어 주신 이유는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함이다.[22] 이는 모든 피조물의 회복을 의미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부어 주신 것이다.

이 구속 사역의 구체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워주셨다. 이

---

21) 이종성, *교회론*, 383-385.
22) 에베소서 4:1-16.

렇게 세우신 이유는 이들을 통해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하신 것이다.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믿음을 자라게 하고 인격이 성숙하도록 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세워 주는 것을 말한다.[23] 그 결과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목표이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주신 섬김의 사역을 통해 지체들을 온전히 세우는 데 있다.[24] 성도로 하여금 성숙하게 함으로 봉사의 일을 통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 성숙되어야 할 첫째는 생각이다. 성경은 우리의 지적인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는 것이라 말한다. 즉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다. 세상적인 생각의 체계를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자가 맨 먼저 생각의 변화를 새롭게 해야 함을 여러 구절에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은 먼저 생각의 변화를 이루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25]

생각이야말로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할 수 있고 마땅히 그래야 하는 곳이다. 생각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원천 가운데 하나이며, 우리의 모든 행동 방향을 결정한다. 생각은 감정을 유발하고 감정은 우리 세계의 틀을 정하며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되기 때문이다.[26]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성숙에서 생각의 변화는 모든 것의 기초를 놓는 것처럼 매우 중요하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생각의 근본적인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생각이 그리스도의 세계관으로 바뀌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

23)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196.
24) 고린도전서 14:1-26.
25) 로마서 12:2, 에베소서 4:23, 빌립보서 2:5.
26) Dallas Willard, *마음의 혁신 (Renovation of the Heart)*, 윤종석 역 (서울: 복 있는 사람, 2003), 161-162.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의 목표인 성숙은 생각의 변화로부터 이루어진다. 자연히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기 시작하고 사역의 내용도 달라지며 교회 공동체도 그리스도의 세계관으로 온전히 세워져 진정한 성숙이 있을 것이다.

둘째, 성숙되어야 할 것은 인격이다. 인격이 성숙되어 온전히 되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을 말한다. 즉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27]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헌신하여 함께 모인 자들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는 일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그들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도록 마음의 통찰과 습관을 형성해 주는 일이다. 이것이 제대로 되면 마음 가득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대할 것이고 삶에는 기쁨과 순종이 넘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성숙되어야 할 것은 행동이다. 교회 공동체의 성숙을 위해서 각 구성원들의 행동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실천함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구체적인 훈련 없이는 듣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훈련이란 어느 정도 개인 차원에서 수행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언제나 그 이상의 무엇이 필요하다. 이것은 이미 앞서 있는 자들을 통해서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28]

교회에서 훈련을 통해 무엇인가 행동하도록 가르친다는 것은 적절한 경우가 닥칠 때 실제로 당황하지 않고 성숙된 성도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의 가르침은 단순히 정보나 전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말씀을 행하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즉 교회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결과로 얻은 모든 정보를 삶속에서 바르게 행함으로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바른 성숙을 가져온다.

---

27) 에베소서 4:17-24, 빌립보서 2:5, 베드로전서 1:6.
28) Willard, *마음의 혁신*, 417.

2. 조화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또 다른 목표는 성숙과 함께 성도간의 조화이다.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신분,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도간의 조화가 필요하다. 공동체의 모형인 열두 제자를 향한 주님의 요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조화였다. 지체들 간에 서로 높아지고 파당이 생기려고 할 때, 예수님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서로 섬김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셨다.[29]

이렇게 서로 간에 조화를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체들 간의 연합이다. 이것은 단지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은사를 사용함으로써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바울은 떡이 하나이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예함이라고 말하고 있다.[30] 이 말은 지체들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연합해야 함을 말하는데, 공동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또한 주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좀 더 나아가서 이것은 공동체 지체들이 서로 성만찬을 통해 떡과 포도주를 나눔으로써 공동체가 서로 연합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에 많은 지체가 있다는 사실이 개인주의적 태도를 주장한다거나 공동체 안에 파당을 형성하는 일로 빚어져서는 안 되고 오히려 단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31]

공동체의 조화가 공동체의 목표임을 보여주기 위해 성경에서는 몸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 인간의 몸을 비유적으로 묘사함으로 몸과 공동체를 상관 지으며, 공동체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다. 특히 고린도전서 12장 12-30절은 공동체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다. 공동체의 각 지체는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을 섬기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은 어떤 사람도, 어떤 무리도 자기들의 특별한 은사를

---

29) 마태복음 23:11-12.
30) 고린도전서 10:17.
31) Lewis B. Smedes, *바울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 (Union with Christ)*, 오광만 역 (서울: 여수룬, 1991), 70.

가지고 다른 이들의 몸에 기여해야 할 책임을 무시해서는 안 되며, 다른 이들에게 자신들과 똑같아야 된다고 강요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공동체는 다양한 사역을 포함하고 있다. 몸이 온전하게 되는 것과 일치를 이루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기능의 다양함 때문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가 합당하게 기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사람이 각각 특별한 공헌을 하도록 창조하신 것이다.[32] 이는 바로 모든 지체가 각각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다른 지체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지체가 온 지체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33] 따라서 모든 지체는 공동체 안에 원활하게 참여해야 한다. 자신이 다른 지체를 섬기고 다른 지체의 섬김을 받을 때 온전히 기능을 발휘하게 되고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목표는 성숙과 조화이다. 성숙하지 않는 공동체는 공동체성이 점점 상실되고 있고, 성숙하며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공동체는 온전한 교회 공동체라 말할 수 없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성숙과 조화라는 이 목표를 향해 모든 사역과 조직을 이루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제 3 절 교회 공동체성 상실의 문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그렇지 않은 교회인지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공동체성 상실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공동체성의 상실 문제는 비단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 사회의 한 특징으로 자리 잡은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현대 사회의 큰 조류인 이 개인주의적인 사상이 교회 내부로 여과 없이 들어와 교회의 근본을 흔들어 놓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교회 안팎에서 공동체성 상실의 문제 원인들을 살펴봄으로써 교회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한 토대를 마련고자 한다.

---

32) 고린도전서 12:14-21.

33) Robert J. Banks, *바울의 공동체 사상 (Paul's Idea of Community)*, 장동수 역 (서울: IVP, 2007), 85.

1. 공동체가 해체되는 상황적 영향

교회는 근본적으로 공동체로 존재한다. 그러면 공동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공동체(Community)는 혈연이나 지연에 기초한 소단위의 집단을 의미하고, 사회(Society)는 구성원의 공동 목표를 위해 작위적으로 형성한 집단을 가리킨다. 송인규는 사회를 둘 이상의 구성원이 자연적이든 작위적이든 어떤 공동의 목표를 위해 유지해 나가는 집단으로 정의내리면서, 공동체는 사회 체제적 형태 가운데 좀 더 자연적인 성격의 것, 예를 들어 가정, 문중, 마을 등에 국한 시켰다. 이와 동시에 공동체를 사회보다 협의적인 개념으로 보았다.[34]

이와 같이 공동체에 대한 일반 사회 과학적인 정의를 전제로 하여 일반적 의미로서의 공동체를 정의한다면 함께 생활하며 재산을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과 목적을 갖는 사회집단, 또는 구성원들이 강력한 참여 의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단체를 일반적 의미에서 공동체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모인 신앙중심의 모임을 그 특성으로 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의 교회 공동체란 신앙의 공통된 관점을 체험하는 것을 구성원들끼리 인격적 관계 속에 서로 나누는 삶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란 각 개인들이 함께 일치(com + unity)를 향해 나가는 삶의 과정이라고 하겠다.[35]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교회 공동체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그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함께 공유하는 기독교 단체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관련지어 이루시는 일로서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 관계를 맺고 계시는 모습에 있다. 그것은 바로 언약(covenant)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있는 것이요,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나타난 그의 나라가 바로 이 개념과 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란 하나님과 인간 간의 공동적 삶을 가시적으로 표현해 내는 모임이라 할 수 있다. 기독교 신앙공동체의 특징은 성경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세우신 언약이라는 관계위에 있음을 그 특징으로 한다. 하나님은 이 언

34) 송인규, *성경은 공동체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서울: IVP, 2002), 86.
35) 문석호, *한국교회와 공동체 운동*, 61.

약 속에서 그의 백성을 끌어들이시고 세상을 위하여 온 세계로 내보내신다.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하면서 그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단을 신앙공동체라고 규정할 수 있는데, 이 공동체의 구성원이란 언약에 참여함과 동시에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이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에게 복을 주신다.[36]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러한 공동체를 성령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공동체를 살아 움직이게 하고 단단한 유대를 갖게 하는 것이 곧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성령은 공동체 안에서 은총과 직무와 사명을 심어 주어서 성도들이 서로를 세우고 교회의 몸을 이루는 관계로 견고하게 한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성령 안에 있어야 하며, 성령을 통해 사명을 실천해야 한다. 교회가 실제 세상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움직일 때 생명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37]

교회 공동체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된다. 이 신앙고백의 내용 가운데 있는 성도의 교통(the communion of Saints)은 공동체로서 교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공동체로서 교회를 의미하는 성도들 간의 교통이라는 말의 성경적 근거는 희랍어의 '코이노니아'를 번역한 것으로 이 말이 사도행전에서 사용된 것은 그 단어 속에 들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효능으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지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고 그 지체들에 의해 계승되어져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세워야 할 하나님과의 화해된 관계 안에서의 공동체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새로워진 인간관계는 무엇보다도 위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에 근거를 두는 것이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공동체가 처한 외부 환경 혹은 공동체의 지도자에 따라서 구성원의 신앙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하나 됨을 추구하는 교회여야 한다.

---

36) 최홍석, "성경적인 교회론의 정립을 위한 규범 연구," *신학지남* 265 (2000), 145-46.
37) J. Moltmann,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Kirche in der Kraft der Geistes)*, 박봉랑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3), 46-48.

주후 318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재정된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우리는 하나의 교회를 믿는다'고 규정되어 있다.[38] 이 신조에 의하면 교회는 하나이다. 그러므로 각기 다른 신앙을 소유한 구성원들이 모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 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종교개혁시대 이후로 교회는 하나 되기를 멈추어 버렸다. 교회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되었고, 급기야는 수백 개의 교회가 난립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장로교회, 감리교회, 루터교회, 침례교회, 오순절교회 등 그 명칭을 기억할 수도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런가 하면 같은 장로교회에서도 분열되어 합동측, 통합측, 기장측, 고신측, 대신측 등 수 없이 많은 갈래로 나눠져 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교회 공동체성이 상실되고 성장이 둔화된 원인이 바로 이러한 교회의 분열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교회 공동체 개념을 희석화시킨 주범으로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을 들지 않을 수 없다. 포스트모더니즘은 21세기에 큰 영향을 준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이란 모더니즘이란 말에 '뒤'나 '후'를 뜻하는 포스트(post)라는 접두어를 붙여 만든 말이다. 이 말은 1960-70년대 미국에서 문학과 건축 등의 예술 관련 분야에서 만들어진 말인데, 말 그대로 모더니즘 이후에 모더니즘과 상반되는 특징을 갖는 작품이나 작가, 혹은 취향이나 태도 등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것은 하나의 현상이 아닌, 여러 현상을 나타낸다.[39]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기본적 정서는 대개 부정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계몽주의에서부터 시작하여 교회 공동체를 위협해온 어떠한 사상이나 가치체계들보다도 부정적이고 심각한 측면에서 교회 공동체를 약화시키고 붕괴의 위험성을 가져다주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불안전성과 불확실성이야 말로 교회의 공동체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40] 이처럼 교회의 분열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사상으로 교회 공동체 개념이 점점 희석화 되어가고 공동체성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

---

38) 김명용, *열린 신학 바른 교회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7), 54.
39) 박영철, *셀교회론*, 157.
40) Thomas H. Groome, *기독교적 종교교육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이기문 역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교육부, 1983), 183.

2. 현대사회의 종교관 변화

현대사회는 근대 농경문화적인 사회를 지나 현대 산업사회를 거쳐 지금은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다. 흔히 서구사회의 문화를 세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전근대(premodern), 근대(modern), 포스트모던(postmodern)이라고 말한다. 현대인들은 포스트모던 시대에 살고 있다. 포스트모던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종교에 대한 가치관도 변화되었다. 이는 대략 6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현대인의 종교성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41]

첫째, 교회는 원하지 않으나 하나님은 원한다. 이것은 교회가 불신자들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 교회 자체의 생존에 관심을 집중하는 현상에 대한 결과이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이 교회는 반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환영한다는 말이다. 이처럼 현대인들은 종교적 영성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교회의 생존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 도덕적 방황 속에서 용서와 확신을 원한다. 과거에는 획일적인 도덕과 윤리 가치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 세대는 도덕적 상대주의 속에 살고 있다. 이 다양성의 사회 속에서는 절대 가치를 찾을 수 없고, 도덕적 기준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용서와 확신을 종교를 통해 얻기를 희망한다.

셋째, 율법보다는 합리성을 추구한다.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명령과 지시 받기를 싫어한다. 이미 교회 안에도 이러한 모습은 일반화 되어 있다. 그래서 현대인을 위한 사역은 명령과 지시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관점에서 율법이 주는 영적, 감성적, 육신적, 사회적 유익성을 바르게 제시해 주어야 한다.

넷째, 기독교와 자기 신앙에 대한 지식과 확신이 없다. 21세기는 즉흥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는 시기이므로 과거에 비해 기독교에 대한 지식과 신앙에 대한 체계적인 습득을 꺼려한다.

다섯째, 개인적인 영성 생활에 질문이 많다. 21세기는 개인 생각이 폭넓게 반영되고 보호받는 세대이기 때문에, 획일주의적인 대답보다는 다양한 질문과 다양한 대

---

41) William M. Easum, *교회성장 핸드북 (The Church Growth Handbook)*, 안승철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14-17.

답을 원한다. 따라서 교회는 현대인들의 영적 질문에 대해서 진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대답해 줄 수 있는 열린 교회가 되어야 한다.

여섯째, 종교의 진리성 뿐 아니라 현실에서의 유익성을 강조한다. 과거는 종교에 대한 진리를 찾아 가는 것이 영성 생활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선택한 종교가 얼마나 유익을 주는가에 대한 대답이 우선이다. 그래서 21세기를 향한 교회에서는 기독교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구원 문제, 아픔, 갈등, 상처 속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신다고 분명히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은 종교성에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종교에 대한 개인주의적 성향이 더욱 강화 되면서 교회일원으로서의 만족보다는 자신의 구원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상처와 갈등을 치료하며, 개인 신앙생활에 관심이 더욱 높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심리적 특징은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상실하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이다.

3. 교회의 공동체적 대항문화[42] 약화

현대인들은 종교에 대한 개인주의적 성향이 더욱 강화되면서 교회 일원으로서의 만족보다는 자신의 구원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상처와 갈등을 치료하며, 개인 신앙생활에 관심이 더욱 높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의 교회 공동체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제공해 주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교회 공동체를 보면, 또한 신약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면 당시의 교회 공동체는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 단순하지만 역동적인 모습, 온 세상과 이웃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공동체, 하나님이 고안하신 공동체로서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가진 공동체, 서로 제자가 되게 하고 예수님의 삶이 서로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게 하는 공동체, 사랑과

---

42) 대항문화(counter-culture)란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 체계나 생활 방식 따위를 거부하는 문화. 1960년대에 기성사회 주류문화에 대해 대안적 삶의 방식과 의미체계를 제시한 사회운동을 일컫는다. 대항문화는 지배문화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일탈적 성격을 띤다. 1968년 시어도어 로작(Theodore Roszak)이 처음으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는데, 그는 소외심리, 동양적 신비주의, 환각약물, 공동체적 실험에 대한 젊은이의 관심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양식으로 대항문화를 정의하였다.

웃음이 넘치는 공동체,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죄 용서의 감격과 재미가 있는 공동체, 성령의 능력과 배움을 위한 자료들이 있는 공동체, 막대한 돈과 능수능란한 말솜씨나 통제와 조종이 필요 없는 공동체, 능력이 있고 은사 충만한 영웅들이 없이도 살아 역사하는 공동체, 사람들을 복음의 핵심으로 인도하여 전율케 하고 엄청난 기쁨과 경이감에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공동체, 우리에게 삶의 길을 단순명료하게 가르쳐주는 공동체의 모습이었다. 이런 교회 공동체는 근본적으로 교회가 공동체적인 사명을 다할 때 되어 질 수 있다.[43]

그러나 오늘날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이러한 성경적이고도 원초적인 신약성경의 교회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는 것은 이미 일반화된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교회가 이제 근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그리 지나친 표현은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오늘날의 교회를 성경을 벗어나서 마치 가출한 고아처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정체성을 상실한 교회로 만든 것일까? 세계 교회사적으로 보아도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고속성장을 이룩한 한국교회를 통해서 그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교회의 교회 상황을 개괄적으로 회고하면서 그 결산서를 제출하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성장이란 단어가 떠오를 것이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매우 수용적이고, 적극적이고, 감성적이고, 열정적인 종교성을 지닌 한국인의 종교적 문화요인과 1960년대 이후 크게 확신되었던 부흥운동, 성령운동, 신유운동 등의 교회적인 요인, 그리고 정치, 사회적 억압, 급속화한 산업화와 도시화 등의 정치, 사회, 경제적인 요인 등으로 인해 많은 성장을 가져왔다. 또한 교회성장론의 영향 역시 교회성장의 중요 요소로서 무시하지 못할 요인일 것이다. 물론 가장 큰 원인이며 이 모든 원인들을 포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44]

한국교회는 그동안 성장을 목표로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성장 붐이야말로 오늘의 교회 상황을 대변하는 대명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심각한 자기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수직적 목표는 상대적으로 교인 상호

---

43) Wolfgang Simson, *가정교회 (Houses That Change the World: The Return of the House Churches)*, 황진기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5), 13.
44) 이원규,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친 교회성장론에 대한 임상적 평가 (한국교회 성장 평가와 2000년대 비전2)," *목회와 신학* 56 (1993), 41-44.

간의 수평적 목표를 간과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인 상호간의 관계성은 처음부터 도외시 되었다. 나만 잘되면 된다는 폐쇄적인 신앙관은 신앙의 개인화를 더욱 촉진시켰고 신앙의 배타성을 크게 키웠다.

교회는 한 분의 주를 모시고 그 분의 명령을 따라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 애쓰는 공동체이다. 서로 자신의 신앙만을 위해 노력하고 애쓴다면 이는 분명 하나님의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개인주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할 때, 앞으로 교회는 더욱 더 사막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의 개인화를 초래할 것이다.

둘째, 물량주의를 들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비극과 국제적 경제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겨우 헤어 나온 현대인들은 무엇보다도 생활의 안정과 물질의 번영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현대사회는 물질만능주의가 판을 치게 되었고 물량팽창시대로 돌입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전반에 깔린 물량팽창에 의한 가치관이 어느새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목회자와 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다.

교회의 외형적 성장과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지만 수천, 수만의 성도와 대성전, 교육관, 주차장 등의 시설을 구비하는 것이 교회 존재의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물량주의로 말미암아 교회는 자연스럽게 가진 자 중심의 교회로 변질되었고, 세속적 가치관이 교회 내에서도 여과 없이 반영됨에 따라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은 교회 안에서 또 한 번 소외되어야 하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교회 현실에서 공동체는 그야말로 신기루와 같은 닿을 수 없는 교회의 지향점이 되어 버렸다.[45]

셋째, 잘못된 신앙과 복음이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한국교회에 만연된 기복신앙이다. 하나님의 복을 기원하는 것은 인간의 공통된 본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복 받기 원하는 것은 원래 민속종교에서 주류를 이어온 공통된 흐름 가운데 하나이다. 불교도 이 무속적인 기복신앙과 결탁한 면이 있고 유교가 제창된 삼강오륜도 우리 민족의 기복신앙과 관련해서 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한국의 경우도 복음이 쉽게 뿌리내릴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이 기복신앙의 민족적 바탕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기독교 일각

45) 송천호, "기획연재3:21세기를 맞이하는 교회갱신," *현대종교* 235 (1993). 136.

에서 교회 안에서 되어 진 모든 것을 샤머니즘이라 해서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이런 기복신앙의 온상에서 싹이 난 복음을 제대로 배양해서 꽃을 피워 열매를 맺게 해야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한국 교회 특유의 문화적, 영적인 상황에 대한 지혜롭지 못한 대처가 교회의 공동체성을 상실하는데 크게 원인 제공을 한 것 또한 사실이다.

교회 성장의 붐 속에서 이러한 기복신앙은 목회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교인들은 개인주의적이고 현대의 이기주의적인 신앙을 소유할 수밖에 없었다. 목회자들은 이러한 한국교회 특유의 분위기를 자각하면서도 그에 대한 지혜로운 대처보다는 오히려 성장이라는 미명 하에 현실적인 축복개념을 지나치게 이용한 면 또한 없지 않다. 이러한 결과로 교회 내에서 성도 상호 간의 관계적이고도 상호 헌신을 요구하는 공동체적인 교회의 본질은 발붙일 곳이 없게 되었다.

넷째, 목회구조의 문제이다. 한국교회의 목회구조는 목회기능이 집단목회 기능인 설교와 예배가 목회의 전 영역을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설교와 예배의 집단 목회기능의 독주는 목회의 방향을 선교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어 교회의 에너지와 활력소가 세계 속의 인간을 교회의 영역으로 옮겨 놓은 것을 선교로 이해하게 되었다.[46]

이와 같이 한국교회의 목회구조에 계시적이고 수직적인 성격이 강한 선교와 설교를 그 중심 기능으로 하는 집단목회 기능이 일방적으로 우세해서 생겨나는 문제는 신자들의 삶과 윤리, 인간과 인간의 수평적 관계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선교를 목표로 하는 설교위주의 집단적 목회의 기능은 교회의 양적 팽창과 구조의 대형화는 이룰 수 있지만 인간의 무의식적 풍토까지 일을 수 있는 공동체적 변화는 초래할 수 없고 오직 목회만이 이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47]

그리하여 설교와 예배위주의 집단적 목회기능이 우세하고 교인 상호간의 관계와 나눔의 수평적 기능이 열세했던 결과로 한국교회 교인들이 형식상으로는 기독교인이지만 의식구조상으로는 유교, 불교, 도교와 샤머니즘에 깊이 물든 비기독교인임을 면치 못하는 의식의 이중구조가 한국 기독교인들의 현실이 된 것이다.

또한 소그룹과 집단에 대한 목회기능의 불균형은 명목상의 기독교인을 만들기에

---

46) 이기춘, *한국적 목회신학의 탐구*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출판부, 1991), 144.
47) 이기춘, "한국교회 목회구조 갱신의 방향," *신학과 세계* 8 (1982), 516.

는 성공하였을지 몰라도 복음의 의미와 공동체적 가치관 위에 터전을 잡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양육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제 한국교회의 목회구조와 방향은 설교와 예배위주의 일방적 목회기능과 관계중심의 목회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성도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권고하고, 문안하고 섬기며, 가르치고, 받아들이며, 존경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며, 서로에게 복종하는 등 여러 가지의 다른 일들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48] 이것이 성경적인 공동체의 모습이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행해야 하는 책임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다.[49]

---

48) 에베소서 4:16.

49) Rick Warren, *목적이 이끄는 삶 (The Purpose-driven Life)*, 고성삼 역 (서울: 디모데, 2002), 180.

제 3 장
성경적 관점에서 본 교회행정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 중 교회행정의 중요성은 종종 무시된다. 그러나 필자는 교회행정이야 말로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매우 긴요하고 효과적인 방안이라 본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성경적 관점에서 교회행정의 어원과 정의를 살펴보고, 교회행정의 원리는 무엇이며 성경에서는 행정이 어떻게 다루어져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래서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행정이 필요함을 밝히고자 한다.

교회행정이 추구해야 할 목표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자들을 세우셨다. 이렇게 세우신 이유는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의 각 부분으로 서로 돌보게 하시기 위함이다.

즉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에 맞는 직책을 맡기신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조직화되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인 차원에서 일을 해 나가야 한다. 최선의 결과가 나타나도록 효과적으로 전개해 내갈 수 있는 방안이 곧 교회행정이다.

제 1 절 교회행정의 단어적 고찰

교회행정이란 단어는 '교회'와 '행정'의 복합어이다. 그렇다고 교회행정을 행정이란 단어가 들어갔다고 일반 행정과 동일시 할 수는 없다. 교회 행정은 일반 행정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회행정을 말할 때는 일반 행정과는 다른 교회 행정으로써의 행정을 말하는 것이다.[50]

---

50) 손병호, *교회행정학 원론* (서울: 유앙게리온, 2000), 32.

교회행정은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의 과정으로써 일반 행정과 유사하지만, 조직의 목표와 과정은 일반 행정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 차이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교회행정의 단어적 고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행정에서 영어로 행정의 뜻이 있는 administration 의 라틴어 어원은 administrare 이다. administrare 는 접두어 ad 와 부정사 ministrare 의 합성어로서, ad 는 '앞에'(before)라는 뜻을, ministrare 는 '봉사하다'(to serve)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교회행정이라는 뜻은 '교회 앞에서 봉사하다' 또는 '교회에 봉사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51]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셨다. 여기에서 섬긴다고 하신 주님의 뜻은 바로 행정하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개념은 바울 서신에서도 여러 차례 사용되었다.

이런 어원에서 볼 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 더불어 혹은 사람들을 통하여 어떤 계획된 일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다. 행정의 어원에서 나타난 의미는 지배하고 통제하는 의미보다는 섬기고 도와주는 의미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 섬김이 행정이고 봉사가 행정이라는 뜻이다. 이처럼 행정하는 사람은 권위적으로 지배하는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봉사한다는 것이 본래적 의미이다. 교회행정은 교인들을 위한 봉사의 행정이다.

둘째, 디아코니아(διακονία)이다. 디아코니아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서로 비슷하지만 다른 의미를 포함한다. 하나는 순수한 봉사(service)의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목회적 업무(minister)이다. 봉사의 의미로는 로마서 15장 31절의 '섬기는 일'[52] 혹은 누가복음 10장 40절의 '도와주다'[53] 등에 나타난다.

목회적 업무의 의미로는 집사의 직무로서 사도들의 업무(사도행전 1:25, 12:25

---

51) D. P. Simpson, *Cassell's Latin-English English-Latin Dictionary* (London: Cassell & Co., 1968), 16.

52) 로마서 15장 31절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53) 누가복음 10장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등), 신자들의 봉사(사도행전 6:1, 로마서 12:7 등), 성령의 역사(고린도후서 3:8), 천사의 섬기는 일(히브리서 1:14), 복음의 역사(고린도후서 3:9),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주의 종의 일반적 사역(사도행전 20:24, 고린도후서 4:1 등), 그리고 죽음을 다스리는 직분(고린도후서 3:7)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 단어는 영어에서 행정이라는 뜻을 가진 administration 의 어원으로서 신약의에는 고린도전서 12장 5절의 '직임은 여러 가지나'(differences of administrations)라는 말과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 '봉사의 직무'(administration of this service)라는 말로 두 번 나타난다. 이것은 교회의 목회적 업무로서 '직임'과 '직무'를 행정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54]

셋째, 휘페레테스(ὑπηρέτης)란 말은 휘포(ὑπο)와 에레테스(ερετης)의 합성어로서 휘포는 '~의 아래'라는 전치사이고, 에레테스는 '노를 젓는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이다. 따라서 휘페레테스는 '아래서 노를 젓는다'라는 뜻으로 당시의 노예들이 상선이나 전함의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것에서 유래된 단어이다.

당시의 노예들은 주인의 소유물로서 자유가 없이 주인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자들이었다.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노를 저었고 사슬에 묶여 자신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북을 치는 고수의 박자에 맞추어 노를 저었다. 이런 노예는 자신의 의지나 재량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고수의 의지와 재량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고대 희랍에서는 이 말이 원래의 의미대로 노 젓는 자, 선원으로 사용되었고, 나아가서 봉사자, 종, 집정관, 집행관 혹은 관리 등으로 사용되었다.

신약성경에도 이 말이 다양하게 번역되었다. 마태복음 5장 25절에는 재판관으로, 마태복음 26장 58절에는 하속들로, 누가복음 4장 20절에는 맡은 자로, 누가복음 1장 2절에는 일군 된 자로, 요한복음 18장 36절에는 종으로 각각 번역되고 있다. 이 용어가 동사(ὑπηρετεω)로 사용되면 '노를 젓다', '배에 올라 봉사하다'는 의미 외에도 '봉사하다', '지시에 의하여 움직이다', '준비하다', '뒤를 돌보아 주다', '기쁘게 하다'등의 의미를 가진다.[55]

이와 같은 명사적, 동사적 의미의 사용이 행정이 무엇이라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

54) 김석한, *교회행정학 개론* (서울: 도서출판영문, 2004), 28-30.
55) 이성희, *교회행정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0), 71.

고 있다. 따라서 교회행정의 어원이 바로 '아래서 노를 젓는다'에서 유래된 것으로 하나님께 붙잡혀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교회의 행정을 추진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자유를 포기한다는 뜻은 자진하여 기쁨으로 주인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노예와는 그 근본 자세부터가 다르다. 이렇게 교회의 행정가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하여 스스로 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의 배를 낮은 곳에서 열심히 저어가는 자를 말한다.

셋째, 쿠베르네시스(κυβέρνησης)란 말은 고대어에서는 지도하는 능력, 조종, 다스림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만 나타나며 다스리는 것으로 번역되어 교회에서 지도자의 직무를 의미하였다.[56] 이러한 어원이 가리키는 행정의 의미는 교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다스리는 직무를 말한다. 교회행정은 교회가 순종하는 길로 바르게 운영되게 하기 위하여 이끌어 주는 능력이다.

이상의 용어들에서는 하나같이 하나님 아래서 종으로서, 섬기는 자로서 명령을 따라서 그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그 특성이 있다. 이것이 일반 행정과 교회행정의 큰 차이점이며 교회행정의 본질이며 특성이다. 따라서 교회행정이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군을 모아서 좋은 인간관계를 수립하고 회중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행정기능을 계획하고 조직하여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책임을 완성시켜 나아가는 것이다.[57]

제 2 절 교회행정의 정의

레오나드 메이어(Leonard Mayor)는 교회행정을 직능을 결정하며 그 직능을 명확하게 하고 정책을 공식화하여 이를 수행해 나가며 권위를 위임하며 관리자를 선임하여 직원을 훈련하고 이것을 위한 모든 유효한 조직과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과 자원의 동원이라고 하였다.[58] 그의 정의는 상당히 복합적이며 전통적인 교회행정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

56) 이성희, *교회행정학*, 73.
57) 박두헌, *현대교회행정학* (서울: 교회교육연구원, 1991), 13-14.
58) 이성희, *교회행정학*, 75.

아더 아담스(Arthur Adams)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계시된 사랑에 의하여 뭉쳐진 하나님 백성의 집단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교회행정도 교인들을 통하여 함께 일하는 것이라고 하여 목회자와 교인이 함께 협력하여 일하는 협력체계임을 강조하고 있다.[59]

엘빈 린그렌(Alvin Lindgren)은 교회행정을 교회의 본질과 복음 선교의 발전을 포함하며 인적자원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태도라고 하였는데 그에게 있어서 행정이란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어떤 집단이 세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60] 그가 정의한 교회행정은 봉사하는 분야의 목표와 목적을 발견하고 분명히 밝혀서 조리 있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그 실현을 위해 추진해 나가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행정은 교인들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다.

근래에 와서 새로운 교회행정의 정의를 제공해 주는 로봇 데일(Robert Dale)은 교회행정을 어떤 방법이 아니라 목회 그 자체이며, 서류작성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이며, 비인격적인 정책이 아니라 인격적인 과정이며, 교묘한 조작이 아니라 관리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교회행정이란 어떤 조직의 사람을 발전하게 하는 방법이며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특별히 교회행정은 단순히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계속해서 그는 교회행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교회행정이란 하나의 과학이며 예술이며 은사이다. 과학으로서의 교회행정은 연구와 실천에 의하여 습득되어지는 진행과 기술을 포함하며, 예술로서의 교회행정은 상호 관계 속에서의 감수성, 직감 그리고 적절한 시간 포착을 요청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행정에 관한 기교는 다분히 천부적인 재능이지만 경험과 훈련에 의하여 향상될 수 있다고 보았다.[61]

찰스 티드웰(Charles A. Tidwell)은 목회자에게 행정이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교회행정을 지도력 곧 리더십이라고 하였다. 그는 교회행정은 교회가 교회 되게 하고 교회가 교회의 일을 할 수 있게 갖추어 주는 지도력이라고 말한다.

---

59) Adams M. Arthur, *Pastoral Administration* (Philadelphia, PA: Westminster Press, 1964), 14-15.

60) Alvin J. Lindgren, *Foundation for Purposeful Church Administration* (Nashville,TN: Abingdon Press, 1965), 22-25.

61) Robert Dale, *Church Administration Handbook* (Nashville, TN: Broadman Press, 1985), 11.

또한 교회행정이란 교회의 영적, 인적, 물리적, 재정적 자원을 이용하여 교회가 추구하는 목표와 교회의 영구한 목적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교회지도자들에 의해 제공되는 안내서라고 한다. 그리고 교회행정이란 교회를 구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이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라고 한다.62)

결국 교회행정은 교회전체를 동원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야 하는 선교적 사명을 완수 하는 데 있어서 주어진 모든 물적,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적이고 포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를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곧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는 길이다.

제 3 절 교회행정의 원리

교회는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졌으며, 각 지체로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 신적 기관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발견해 나가야 한다.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의해 조직되고 그분의 목적하심에 따라 인간의 포괄적인 능력과 방법으로 조직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올바른 교회행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교회행정의 동기는 성경이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결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절에서는 교회행정의 기본원리와 조직의 원리를 살펴보고 성서적 입장에서 교회행정의 원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

62) Charles A. Tidwell, *Church Administration Effective Leadership for Ministry* (Nashville, TN: Broadman Press, 1985), 27.

1. 교회행정의 기본 원리

건강한 교회의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좋은 행정가가 되는 길은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에 대한 좋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 프로그램이 아무리 유명한 걸작품이라 해도 교회 행정가로서 자기 상황에 꼭 맞게 적용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에 근거하여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 행정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회 행정의 기본 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배와 교육을 통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영적 기초 확립이다. 이것은 가장 기초가 되는 중심 원리로서 사실상 모든 원리는 이 기초위에 자리를 잡아야 한다. 물론 예배와 교육이 없이도 교회는 장엄한 건물과 주일과 그 밖의 다른 때의 집회소, 그리고 많은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지역사회 센터로서 중요한 구실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운 교회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방향 감각, 교회 활동의 기본 동기, 교회의 목표와 표준은 전체 교인에 의한 예배와 교육의 기초 위에서 정립이 돼야 한다.[63]

둘째, 구속적 인간관계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를 통해서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도구이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관계에서 사랑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행동하려는 개인 속에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행정은 필수적으로 인간의 상호관계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이처럼 행정과 목회의 중심에 인간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할 자리에 오늘날 교회에서는 프로그램과 조직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런 현상에 대하여 에드워즈(Richard H. Edwards)는 인간을 목적으로 보아야지 방편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인간은 모든 교회 활동과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프로그램을 집행하기 위한 도구나 성공적인 교역을 증명할 통계 숫자로 취급해서는 절

---

63) 박재호, *21C 현대교회행정* (서울: 비전북출판사, 2007), 50.

대 안 된다고 지적한다.[64]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교회행정의 원리는 구속적 인간관계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셋째, 소그룹 개발이다. 오늘날 아주 작은 교회에서도 열 개 이상의 그룹을 가지고 있다. 교회가 커질수록 이 다양한 그룹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현대 교회가 영적 갱신을 해 가고 있는 방법들의 하나는 소그룹 운동이다. 소그룹 운동은 개종의 변화를 가져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며, 기독교적 이해에서 성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때로는 목회상담보다 더 심원한 자아 통찰과 자아 이해에서 내적인 성장을 얻는다. 더 나아가 교회를 위한 충성과 동료를 위한 봉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한 기독교인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시야를 넓히게 한다.[65]

넷째, 평신도 훈련이다. 건강한 교회 행정은 평신도가 교회 일과 교회 생활에 그들의 재능을 활용하도록 자극받고 훈련되어야 하는 기본 원칙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 사명을 성취하는 데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면 교회행정은 가장 우선적인 관심사의 하나로 평신도 지도력과 봉사를 위한 훈련을 포함해야 한다.

평신도 활동의 영역은 교회 안에서 상호간에 살펴 주는 사역에 종사하는 것으로서 교회의 친교 속에서 서로를 섬겨야 한다. 그러므로 서로 필요한 것을 살피고 보살펴 주는 것은 평신도의 책임이고 공동체 안에서 이런 종류의 사역이 되도록 장려하는 것은 교회의 리더인 목사의 책임이다.[66]

또한, 평신도를 직접적 및 개인적 생활을 통해서 세계에 기독교인의 영향을 미치게 하도록 내보내는 것이다.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영향을 세상의 여러 차원으로 미치게 하기 위해선 직업적이고 개인적인 결단에 있어서 사업가, 공무원, 교육가, 과학자 및 지역사회 그룹의 일원들로서 기독교인의 증언을 하려고 애쓰는 평신도들의 기독교적인 증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다섯째, 자원 활용이다. 목적 달성을 위한 교회행정은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일관성과 포괄성이 있는 방법으로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완전히 활용할 것

---

64) Richard H. Edwards, *A Person-Minded Ministry* (Nashville, TN: Cokes bury Press, 1940) 120.
65) Lindgren, *교회개발론*, 179-180.
66) Lindgren, *교회개발론*, 186-187.

을 요청한다. 개개의 교회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통찰력과 지식은 하나의 교회로 실현될 수 없다. 각 교회는 비슷한 문제점을 지닌 다른 교회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교회행정이 교회의 사명에서 유래된 독특성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다른 분야의 행정으로부터 어떤 공통적인 관심사를 같이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외부의 기관들과 그 행정 운영 방식은 교회에 많은 자원을 제공해 준다. 교회 행정가들은 이러한 세속적인 자원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그것들이 교회의 사명에 유용한지 해로운지를 식별할 수도 있어야 한다.[67]

2. 교회행정을 위한 조직 원리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을 가리켜 거룩한 공회, 곧 교회라 한다. 교회가 공동예배로 모이는 예배처소에 일정한 수가 모여 지교회를 설립하는데, 교단의 허가를 받아 교회를 설립하게 된다. 이처럼 지교회가 설립되면 거기에는 교회행정 조직이 나타나게 된다. 교회의 조직도 조직의 원리에 따라 조직되고, 운영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교회행정 조직의 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층의 원리이다. 교회에서는 상하관계가 잘못되면 교회의 본질을 왜곡하는 그야말로 계급화의 사회단체와 똑같이 되기 쉽다. 그러므로 교회조직에서는 기능이 있을 뿐이지 계층이나 계급은 있을 수 없다.

둘째, 조정의 원리이다. 교회행정 조직에서는 각 부서가 제각기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그 활동이 통일이 되어서 최종적인 조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행정가의 책임 중 가장 중요한 책임의 하나는 부서의 조직이 교회 전체에 어떤 이익을 주는지 상호 조정 역할을 하는 일이다. 교회 각 부서장들이 자기 부서의 활동만을 생각하고 타부서와의 관계나 교회 전체의 관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회에서는 교회 전체의 방향을 지도하고 조정해 줄 책임이 있다. 그리고 각 부서의 활동에 대한 조정은 위원회 등을 통해 조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각급 교회학교 부서 활동을 교육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지도

---

67) 권오서, *교회행정과 목회* (서울: 도서출판 KMC, 2008), 50-60.

하는 것과 같다.

셋째, 분업의 원리이다. 교회에서도 특별히 기능을 살려야 할 조직이 있다. 교회 교육이나 교회 음악 또는 그 지역에 맞는 봉사활동에 있어서도 전문적인 사람들이 따로 모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는 계층이나 계급은 별로 구애받지 않는 것이다. 교회가 대형화되면 기능의 원리를 적용한 기능별 조직이 교회 성장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교회의 선교기관 조직에 있어서 의사, 교수, 법관, 관료, 군인, 기타 직업에 따른 기능별 조직을 하면 조직 구성원들의 참여도가 높아질 뿐 아니라 교회 조직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교회에 있어서 협동 목회는 이러한 효율성을 위한 전문화, 분업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평신도들을 교역에 직접 참여시키는 일도 교역의 분화라 할 수 있다.

통솔의 범위는 교회학교 반 편성이나 구역, 교구의 편성 시 오랜 교제가 있는 사람끼리는 많은 수가 편성 되어도 별 무리가 없다. 하지만 신입생이나 새가족 교인의 경우는 작은 수여야 효율성이 높다. 그리고 교회학교를 오랫동안 지도해 왔던 사람은 더 많은 사람을 통솔해도 잘 소화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교회행정 조직에서 명령이 다를 때, 그 조직 부서에서 일하는 성도들은 혼란을 겪게 되므로 해당부서 행정의 책임자는 명령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그 명령이 잘 전달되어 수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회행정 조직에서는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먼저 생각하며 자신들의 권위를 위해 명령이 각각 이루어지는 일이 없이 그 부서의 행정 책임자가 조정해서 그 조직의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68] 교회행정에서는 명령 같은 권위주의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 보다는 의사전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교회행정의 원리들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가는 목적이 있다. 무너져가고 있고 본질을 상실해가고 있는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서 교회행정의 바른 원리를 세워가는 일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

68) 박완신, *교회행정론* (서울: 기독교문사, 2005), 74-76.

3. 교회행정의 성서적 원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한 성서적 교회행정의 원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동시에 인간 지향적인 양극의 원리를 가져야 한다. 이 양극의 원리는 분리가 아니라 서로 조화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다. 교회행정이 하나님 중심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선교의 근원과 생명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인간 지향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만민에게 자기 사랑을 선포하려고 독생자를 보내셨음을 인정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인간 지향적이라는 말이 인간 중심적인 행정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69]

따라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의 리더들은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때 교회행정의 성서적 원리를 분명히 인식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한 교회행정을 해 나가야 한다.

첫째, 교회행정은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 받은 자들이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모임으로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인간의 편의와 편안함을 좇아서 모든 교회의 프로그램을 인간 중심으로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는데 이는 교회의 본질을 상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었고 하나님에 의해 변화되고 하나님에 의해 진행되는 신적인 기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인 교회에서 행정도 역시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만일 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지 않고 행정만 앞세우는 교회가 된다면 교회는 중세의 제도 중심적인 교회가 되고 만다. 교회행정에 있어서도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고 프로그램 중심적인 교회가 된다면 차갑고 형식적인 잘못된 교회가 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행정이라는 말은 무엇을 하든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사람을 위한 사람을 기

---

69) 방지형, *성경적인 목회행정학* (서울: 성광문화사, 1991), 35-41.

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문에서 말하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도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이라고 말한다.[70]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교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높이는 일이다.

이런 교회는 어떤 문제나 어떤 실제적인 상황에 부딪혔을 때 체면이나 재정적인 문제를 생각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그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인가에 관심을 두는 교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행정은 모든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판단의 척도로 생각한다. 이러한 교회행정은 세상의 수많은 유혹을 물리치는 결단과 행동을 추구한다. 또한 교회 공동체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한다.[71]

또한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행정은 성경에 근거하는 행정을 말한다. 교회행정을 하는 사람의 주요 관심사는 모든 교인들로 하여금 기독교 신앙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도록 도와주고 그런 이해 하에서 행동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행정의 바른 방향 감각을 갖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성경은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행정을 세워가는 안내서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행정은 반드시 성경을 근거하는 행정이어야 한다.

둘째, 교회행정은 인간 지향적이어야 한다. 교회는 먼저 하나님의 것임을 발했지만 그것은 동시에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인간들 속에서 그리고 인간을 통해서 세우셨음을 알게 된다. 교회 생활의 모든 활동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72]

교회행정이 인간 지향적이어야 한다는 말이 인간 중심적이라는 발은 아니다. 교회행정은 우선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교회행정이 동시에 인간 지향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인간이 교회의 관심사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회의 중요한 사명인 전도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사람을 불러 구원 시킨

---

70) Thomas Vincent, *성경 소요리 문답해설 (The Shorter Catechism Explained from Scripture)*, 홍빙창 역 (서울: 여수룬, 2004), 25.
71) 교회문제연구소, *오늘의 한국교회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엠마오, 1987), 295.
72) Lindgren, *교회개발론*, 62.

다는 것은 바로 인간 지향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사랑이 바로 인간을 사랑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행정은 하나님 중심적이며 동시에 인간 지향적이어야 한다.

인간 지향적인 교회행정은 프로그램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지 사람이 프로그램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인간 지향적인 방법은 복음을 전달하는 방편으로서의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복음이 가장 잘 전달되는 것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더 효과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 있어서 평신도의 참여와 인간관계는 교회행정에 중요한 개념이 된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교회행정은 교회행정을 하는 구성원을 존중해야 하고 교회행정이 실천하려는 목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실천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인간 지향적이라는 측면에서 교회행정의 프로그램과 활동은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목적을 두고 진행되어야 하며, 복음을 전달하는 방편으로서 인간 관계성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하고 교회 생활에 있어서 교회와 대인 관계를 중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 4 절 교회행정의 절차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교회를 이끌어가야 한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 교회를 조직적이고 포괄적인 방법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은 우리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아는 지식보다도 훨씬 고차원적인 것이다.[73] 다른 행정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교회행정에 있어서도 행정 책임자는 그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알아야 하고 그곳에 가는 방법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공동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할 때마다 조직의 절차가 필요하다. 교회행정가는 기본 목적 달성을 위해 모든 활동을 포괄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직 절차에 관해서 이해할 필요가 생긴다. 이 행정절차는 행정가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술

---

73) Lindgren, *교회개발론*, 69.

적인 도구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주어진 상황에 적절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다하기 위한 결단이 내려지고 또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여기서는 필요성의 인식, 계획, 조직, 실천, 평가라는 절차로 구분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필요성 인식

첫째,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필요성의 인식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교회에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주어진 과제인지를 찾아내는 일이다. 교회행정에 있어서 우선적인 것이 바로 필요성의 인식인 것이다. 정말 이 일이 필요한 일인가를 평가해서 할 일을 결정하는 것이다. 앞에서 논의한 하나님 중심적이고 인간 지향적인 행정의 개념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의 정당성을 측정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교회의 목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 사랑의 증거를 위한 선교를 지향하여 선포, 친교, 봉사, 예배, 교육 같은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위해 분명하고 폭넓게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일을 우선적으로 찾아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이것을 교회 안에서 연구와 토의, 검토를 통해서 교인들이 자발적이고 자연스럽게 그 과제의 필요성을 이 일을 맡는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교인 전체로서도 과연 이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 이 문제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교인들의 참여가 없으면 대책을 강구해서 실천에 옮기는 과정에서 참여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계획

둘째, 계획하는 일이다. 필요하다고 인식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결정하는 일이다. 계획의 과정에서도 많은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인 전체회의에서 다수가 결정할 기회를 갖게 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점차 중간기관과 소위원회를 통해 연구, 계획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74] 계획은 정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근거가 분명하고 미래지향적이며 범위가 명확한

---

74) 이정일, *교회의 구조행정론* (서울: 범우사, 1990), 127.

최종 계획안을 만들어야 한다. 물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지지를 얻는 계획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조직

셋째, 조직하는 일이다. 전체교인을 모두 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해 준비하도록 조직하는 일이다. 이때는 조직의 내용, 시기, 대상을 바로 설정해야 한다. 조직화의 요소로서 업무의 집단화와 전체인식으로서 일반 구성원의 업무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식을 갖게 하는 일, 직무의 결정과 책임, 권한의 분배, 명령계통 및 협력을 위한 횡적인 관계 확립 등이 필요하다.[75]

조직에서는 계획을 언제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일정과 누가 이 일을 맡아서 추진할 것인가 하는 적절한 인물의 선정, 우천 계획과 같은 비상시의 대안과 기억에서 없어질 것을 대비해서 기록하는 일이 필요하다.

4. 실천

넷째, 실천이다. 사업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실천에 옮길 때 행정가는 조직 구성원들의 형편을 잘 알고 그들과 호감을 갖는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사업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 이것은 시간과 움직임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지치거나 힘들 때, 충분한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실천에서는 의사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사소통을 잘못하거나 분명하게 전달하지 못하면 좋은 생각과 계획이 있더라도 그것을 실현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절한 의사소통과 따뜻한 사랑이 필요하다. 교역 관리자로서 목사는 일할 사람들을 확보하고 훈련하는 일, 일하는 사람과의 분명하고 책임 있는 의사소통, 철저한 현장 관리 등을 통해서 계획된 일을 실천해 가야 한다.

---

75) 조동진, *교회행정학* (서울: 크리스챤헤럴드사, 1981), 82.

5. 평가

다섯째, 평가이다. 교회행정의 마지막 절차로서 일을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는 다음 일의 기획과 인관이 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절차이다. 어떤 경우에는 일을 실천하고 나면 지쳐서 평가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교회행정을 순환적으로 보지 않고 단절된 사건들로 보기 때문에 나오는 발상으로 교회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76]

평가는 일이 모두 끝난 다음에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일이 진행되면서도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순간순간 일을 평가함으로서 다음 일을 조정하며, 더 바람직하게 하도록 돕는 것이다. 평가는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교회의 선교적인 사명을 다하는데 어떤 공헌을 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그것이 교회 주변 형편에 얼마나 가능성 있는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고려하면서 평가되어야 한다. 정직하고 실제적인 평가는 새로운 행정과정에 좋은 근거와 참고자료가 되어서 더 좋은 계획을 짜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제 5 절 성경에 암시된 교회행정의 사례들

교회란 경건한 신앙인의 집단이기 이전에 하나님에 의해 설립되고 유지되며 갱신되는 하나님의 공동체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행정의 본질은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교회행정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성경의 기초에서 나오지 않은 본질이 교회행정의 본질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성경은 조직과 행정양식에 대하여 비교적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전혀 암시되어 있지 않다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폐물이 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조직과 행정은 다만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언급되어 있다.

성경은 이 분야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고 성경의 몇몇 실례들을 통하여 신기한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다. 구약과 신약성경은 조직과 행정에 있어서 동일한 기본적 원리들을 분명히 나타내는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형태나 양식이 절대

---

76) 김석한, *교회행정학 개론*, 81.

적이 아니라 원리가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성경에 나타난 교회행정은 언제나 동일한 형식을 취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사는 동일하지만 구원을 위한 형태나 방법, 곧 교회행정은 달리하여 왔기 때문이다.

1. 구약에 나타난 교회행정

구약의 교회행정이라 함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구약의 백성들은 그 시대에 어떤 반응으로 대처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똑같은 형식의 역사, 즉 행정을 이끄신 것은 아니다. 인간을 창조한 시대부터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시작되었다고 볼 때 교회행정의 시초도 그 당시부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77] 그 후 홍수시대와 족장시대를 거쳐 교회는 그 명맥을 이어왔고 특히 아브라함의 출현과 그 시대 이후는 좀 더 그 규모가 확장되어 감을 살펴볼 수 있다.

출애굽으로부터 광야 시대의 교회행정은 독특한 형태로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다.[78] 그러므로 예배를 위한 관리는 곧 그 시대의 행정의 모습이었다. 특히 이 시대는 한 지도자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도록 권한을 위임하여 교회를 관리한 것이 특징이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 3장 1-15절에 나타나는데 여기서 모세가 지도자로 등장한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다.[79]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마다 정착한 토지를 알맞게 분배 받게 되었고 이때부터 새로운 형태의 행정이 시도 되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생활은 백성 공동체 행정의 형성기라 할 수 있는데, 이때의 공동체의 독립적 조직을 얻지 못하고 오직 이스라엘 국가생활 내에서 그 조직적 존재를 지탱하는 이른바 교회국가(Church-State)와 같았다. 곧 구약에서는 재정일치의 형태를 가졌으므로 교회행정이 곧 국가행정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행정은 하나님의 요구를 수행하는 행위였다. 그러므로 십계명도 교회행정의 원칙인 동시에 국가

---

77) 창세기 2:21-24.
78) 문희석, *새시대 새결단*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 1974), 74.
79) 여호수아 13:1-19:51.

행정의 원칙으로써 의미가 있으며 모세의 목회는 제사장, 예언자, 왕으로서 국가행정과 교회행정이 일치된 목회행정의 원형시대로 볼 수 있다.

출애굽기 18장 13-27절의 내용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행정의 원리를 가르쳐 준 것으로서 이드로는 모세가 혼자 백성을 다스리므로 백성과 모세가 함께 고생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이드로는 모세에게 혼자 백성의 모든 문제를 다스릴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과 계명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로 그 계명을 지키게 하고, 백성들 중에서 유능하고 욕심 없는 자를 골라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삼아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중요한 문제만 모세가 다스리고 사소한 문제는 백성들 중에서 선택한 자들로 다스리게 하라고 충고하였다.[80]

여기서 중요한 행정의 원리가 몇 가지 발견되는데 첫째, 인재를 선택하는 일이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참되게 살며, 욕심이 없고, 유능한 자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행정 담당자의 선발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지향을 중시하는 것이다.

둘째, 통솔의 범위를 말한다. 천명, 백명, 오십명, 십명씩 나누어 다스리게 함을 말한다. 셋째, 행정의 분권화이다. 이는 중요한 것만 모세가 해결하고 나머지는 능력에 따라 천명, 백명, 오십명, 십명씩 다스리는 자들로 해결하도록 하는 위임 원리를 말한다.[81]

이외에도 광야교회는 예배를 위한 행정과 신앙공동체를 위한 행정의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레위 자손을 성별하여 성막제사에 봉사하게 한 것과[82] 지도력 부족을 보충하고 공동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장로 70인으로 백성의 짐을 분담하게 하여 주셨고 매 지파에서 족장을 세우고 보좌케 하였다.[83]

40년간의 광야생활을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믿고 있던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새 지도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넓게 분포되어 각 지파별로 살아가는 데는 그 나름대로의 지도 체제가 필요하였다. 여기에 행정이 요구되어지는 것은 당연하였다.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 24장 1-14절의

---

80) 강병도, *호크마 종합주석* 1 (서울: 기독지혜사, 1992), 312-321.
81) 노정현, "교회행정론." *성서와 현대목회 제 2집* (1990): 448.
82) 레위기 3:17-37, 레위기 8:22-29, 출애굽기 28:1-29:48.
83) 민수기 11:6-7,26, 출애굽기 24:1-19.

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세겜에서 드린 정착된 중앙 성소 예배에서와 신명기 6장 21-23절과 26장 5-10절에 나타난 새로운 신앙고백이다. 이 신앙고백으로 이스라엘은 더 크게 그리고 더 굳건히 뭉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

또 당시 이스라엘은 군사적, 문화적, 종교적 위협이 임습하여 왔기 때문에 강력한 공동체를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제도화나 행정상 체계를 못 갖추었던 사사시대를 거쳐 사무엘 시대에 와서야 교회 행정의 초석을 놓게 된다.

사무엘은 전국을 순회하며 지도하고 제사장 직분으로 혹은 선지자 직분으로 혹은 왕권의 직분으로 다스렸다. 사울을 거쳐 다윗 시대에 와서는 좀 더 토착화된 성경 중심의 사상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율법에 근거한 성경의 교회행정이 실시되던 시기로 여겨진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일 인물에서 행하여지던 교회행정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나눠 세분화 시켰던 시기이기도 하다.

제사장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행정을 맡았고, 선지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을 보전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를 전달하게 하는 일을 맡았고, 왕은 토착교회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되고 제사장은 선지자를 지휘하였다.

포로이후 시대의 교회행정을 살펴보면, 바벨론 포로기의 이스라엘은 모든 자유가 말살당하고 신앙의 일체가 간섭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상황아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지에 대한 자구책이 강구되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새로 탄생된 것이 회당제도였다. 이 회당을 곳곳에 설치하여 그 회당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회당 나름대로의 지도자를 뽑아서 행정을 관장하도록 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은 다시 성전 중심의 예배로 환원된다.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스라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성도 재건하게 된다. 귀환자들은 에스라 제사장과 느헤미야 총독과 학개, 스가랴 선지자의 기도로 성전과 성을 복구하고 다시 새로운 시대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성전과 율법 중심의 교회를 이룩하였다.[84]

---

84) 역대하 36:22-23, 느헤미야 8:16-17.

2. 신약에 나타난 교회행정

구약의 예언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메시야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셨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자라나고 있었다. 기대한 메시야가 오셨는데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다.[85]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그들에게 사람들이 인자, 곧 자신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지 물으셨다. 이에 제자들은 어떤 이는 세례요한이요, 어떤 이는 엘리야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고 대답하였다. 그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한다.[86] 이 고백은 주는 메시야이시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 받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신앙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87] 즉 주님은 굳건한 신앙을 고백한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열두 사도를 중심으로 초대 교회의 기초가 세워진 것이다.[88]

또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며 허약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심으로 시작된 것이 교회행정이다. 따라서 예수님의 교회행정은 그 첫 단계가 목회적 행정을 통한 계획이며, 둘째는 사랑의 실천을 통한 행정이며, 셋째는 예수님 자신이 세상을 떠난 이후를 위한 제자교육이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에는 전권을 가진 행정적인

---

85) E. S. Moyer, *인물중심의 교회사 (Great Leaders of the Christian Church)*, 곽안전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11.
86) 마태복음 16:16.
87) 마태복음 16:17-18.
88) 손병호, *교회 정치학 원론* (서울: 양서각, 1984), 88-89.

결정기관으로 회합이 있었다. 이러한 결정권을 지닌 기관으로서 공동체는 모든 이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직분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이 모임에서 일곱 사람을 뽑아 분열을 일으킬 위험성을 해소하는 한편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만 전무할 수 있게 하였다. 여기서 세워진 일곱 사람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하는 집사라는 직분이 주어졌으며 오늘날 교회행정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89]

교회가 점차 이방세계로 확장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생기게 되고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의 행정시대를 벗어나 세계성을 띤 행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행정도 다양하게 되었다. 초대 예루살렘교회의 선교대상은 대부분의 무리들이 본토 유대인들이었다. 열두 사도들이 유대인들이었고 그 외 예수를 쫓은 많은 무리들이 유대인들이었으므로 복음 전도는 자연히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이유로 초대 기독교 교회는 유대주의적 요소가 다분했다. 조상 대대로 전수받은 율법의 유전과 랍비들의 구약 성경에 대한 해석은 그들의 삶의 뿌리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초기 기독교가 유대교적 요소와 사고방식을 가졌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항이다. 하지만 복음은 조상의 유전적 행실과는 명백히 구분되므로 초대 기독교 교회는 점차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분리돼 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는 긴장과 대립의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이러한 관계의 심화는 기독교에 대한 유대교의 핍박으로 분출되었다. 이는 복음이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초대교회 내에는 이미 이방인들이 있었고 그 수는 점차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여기에 이방지역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기독교 개종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에 큰 역할을 하였다. 많은 경건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말년에 이르러 앳 조상들이 묻힌 예루살렘 근교에 자기 유골도 묻히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기독교에 귀의하면서 예루살렘 교인 수는 날로 증가했다.

이처럼 이방인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유입됨에 따라 교회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것은 기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헬라계 그리스도인들 간의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차이에서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

89) 박경완, *교회행정* (서울: 일정사, 1992), 33.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 교회 내부 조직과 체계를 정립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상호간의 지체 의식을 갖고서 제자들에게 부과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함과 동시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들 열두 사도들 이외에 헬라계 유대인들 및 이방인들 가운데서 일곱 명의 지도자들을 선택했다. 특히 사도행전 6장에서 이들은 구제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세움 받은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이들은 구제하는 일뿐만 아니라 말씀 전하는 일이나 기사와 표적을 행했음을 볼 때 교회의 지도자들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지도한 열두 사도들이 무력하거나 편협함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능히 이끌어 가지 못했다고는 감히 말할 수 없다. 그들은 분명 예수의 직계 사도들로서 교회를 지도해 가는 기둥과 같은 인물들이다. 오히려 일곱 지도자를 따로 세운 것은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려는 사도들의 관용과 순종의 정신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이로서 예루살렘 교회는 열두 사도들과 함께 더불어 새롭게 세움 받은 일곱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더욱 부흥되어 갔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이방세계로 확장된 새 공동체들은 바울 사도와 그를 중심한 전도자들을 세웠다. 새로운 상황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행정이 필요하였는데, 조직적인 인물이요 행정가인 바울은 위대한 목회행정가의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구약교회의 행정과 예수의 행정, 초대교회의 행정을 이어 받아 교회행정의 원형을 남겨주었다.

바울은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위해 교회행정을 그 중심에 두고 말하고 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경우 그 교회의 잡다한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대처할 만한 프로그램을 그때그때 마다 처방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모든 행정적인 결정은 기독교 신앙의 전체적인 이해라는 판단 아래서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모든 개교회의 관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대로 전체 교회의 특성에 알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성경을 통해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결국 교회내의 모든 행정적인 문제의 해결은 기독교 신앙과 교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전제되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기독교 초기 교회 역사를 보면 바울은 무엇보다 이러한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교회 행정에 따르는 복음이 무엇이며 또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기본적인 문제들을 깨달아야 만이 교회행정도 바르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90]

결국, 신약교회는 이론이 아닌 활동과 행위를 전제로 한 신앙공동체로서 이 모임에 상응하는 조직과 행정이 존재해 왔으며 이를 교회는 기록으로, 전통으로 유지 보존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그 근거가 역사적으로 오래되었기 때문에 찾을 수 없을지라도 교회행정은 그 근본적인 신학적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나타난 교회행정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차이점은 있지만 근본 목적은 동일하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성경에 나타난 교회행정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할 때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울 수 있고, 무너져 있는 교회 공동체성을 진정으로 회복할 수 있다.

제 6 절 교회행정과 일반 행정의 차이점

행정 한다는 것은 목표를 성취함에 있어서 교회행정과 일반 행정이 동일하게 같은 점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 행정은 일반정치 체계에서 혹은 기업체에서 공공의 이익이나, 국가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이윤을 위해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교회행정도 어떤 목적을 위해 계획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교회행정과 일반 행정의 유사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학문에 있어서 일반학문과 신학을 분명히 구분하는 것처럼 일반 행정과 교회행정에도 차이점을 두어야 한다. 하지만 신학에서 행정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 학적인 체계를 분명히 세우지 못하고 있으므로 일반학문의 행정 개념을 도입하여 교회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일반학문의 무분별한 행정 개념 도입은 교회의 본질을 오염시킬 뿐 아니라

90) James E. L. Newbigin, *The Household of God: Lectures on the Nature of the Church* (New York: Friendship, 1954), 24-25.

변질까지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91] 따라서 교회행정의 필요성을 논하기 전에 일반 행정과 교회행정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행정과 일반 행정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92] 첫째, 하나님 중심과 사람중심이다. 교회행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의해 변화되고, 하나님에 의해 흐름이 진행되는 바로 신적인 기관인 것이다. 교회행정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은 바로 교회행정의 목적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말과 같다.

하지만 일반 행정은 그 목적이 국가사회의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기에, 일반 행정의 목적은 사람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경영에서 행정은 그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행정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행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일반 행정은 사람 중심적인 행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행정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 사람을 위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행정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판단의 척도로 생각하는 것이다.

교회행정은 성경에 근거하는 행정을 한다. 행정을 하는 사람의 주요 관심사는 모든 교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도록 도와주고 그런 이해 아래서 행동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 행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는 관심이 전혀 없다. 그저 조직체의 목적을 극대화하는 효율을 위해 행정을 할 뿐이다.

교회행정이 인간 지향적이라는데 있어서도 구성원을 존중하고 인간구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점에 있어서도 일반 행정은 인간의 부와 편리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떤 경우에 일반 행정은 조직체의 하부에 있는 인간을 수단으로 까지 볼 때도 있다. 그러나 교회행정은 하나님이 선택한 공동체의 행정을 하는 것이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인 것이다. 교회는 처음부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동체였던 것이다.[93] 이것은 교회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을

---

91) 손병호, *교회행정학 원론*, 22.
92) 박완신, *교회행정론*, 20-25.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 번 보여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행정은 하나님의 선택한 공동체를 위한 행정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선택한 공동체를 위해 그 공동체의 기능을 효율화시키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 행정은 하나님이 선택한 공동체를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 교회행정은 교회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다. 일반 행정은 일반 행정이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각각의 조직체에 따라 그 목적이 다른 것이다. 현대 국가에 있어서 행정의 목적은 일단 국가의 부와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행정을 수행하게 된다. 그래서 국가를 잘 운영해가려고 한다.

일반 경영체에서의 행정과 조직은 그 경영체를 잘 운영해가고 조직을 잘 관리하며 그 경영체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행정을 할 것이다.[94] 그러나 교회행정은 교회의 기능을 잘 수행함에 목적이 있다.

교회행정에 있어서 대표적인 일들은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친교 등이 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그리스도인을 보호하며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가르치며 돕고 그들의 모든 은사를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하며 살아가도록 협력하게 한다. 또한 받은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게 하며 나아가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도록 도우며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는 모든 활동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회행정을 하는 것이다.[95]

셋째, 인간 구원에 목표를 둔다. 교회행정은 공익이나 이윤의 추구를 위한 일반 행정과는 근본 목적이 다르다. 교회에서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구원과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인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속사적 의지와 그리스도의 주권을 충족시켜드리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인 것이다.[96]

이상과 같이 교회행정은 일반 행정과 유사점이 있으면서도 근본적인 면에서는 분명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조직의 원리에 있어서도 일반 행정에서는 상하 계층의

---

93) 사도행전 2:43-47.
94) 박완신, *교회행정론*, 20.
95) 임택진, *목회자가 쓴 목회학*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육부, 1990), 139.
96) 이정일, *교회의 구조행정론*, 33.

원리가 존재하지만 교회행정에서는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은사와 기능이 있을 뿐이기에 상하 계층은 존재하지 않는다. 교회 구성원들은 모두 똑같은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이다.

제 4 장
교회행정의 필요성

교회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한 자들의 모임이다. 이처럼 교회는 공동체이기에 질서와 조직 운영을 위해서는 교회행정이 필요하다.

또한 교회는 외적인 유기체이며 직분에 의한 조직이 있는 조직체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일정한 지역 내에서 한 장소에 모여 교회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교회는 영적이고 외적인 유기체이며 조직체이므로 교회의 유기적 측면을 잘 살리는 행정이 필요하다.

뉴비긴(Newbigin)은 교회의 본질은 결코 정적인 용어로 표현해서는 안 되고 그 교회가 지향해 나가는 의미로서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표현함으로써 교회를 살아 움직이는 것으로 표현했다.[97] 그러므로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움직이는 영적이고 외적인 유기체이다. 직분자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바른 사역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장에서는 먼저 교회행정의 문제점을 교회 행정의 현 상황과 특징 안에서 살펴보고, 그 후 어떤 면에서 교회행정이 필요한지를 논하고자 한다.

제 1 절 교회행정의 현 상황과 문제점

교회 행정의 현 상황을 분석해 보면 행정에 대한 이해도 없으면서 독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가 많은 것이 큰 아픔이다. 주로 목회자의 독자적인 행정 때문에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이것은 결국 교회의 성장을

97) James E. L. Newbigin, *The Household of God*, 21.

저해하는 요인이며, 교회의 아픔이기도 하다.

1. 교회행정의 현 상황

오늘날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 행정의 상황은 살펴보면 첫째, 목회자 중심의 교회 행정이다. 목회에 부르심을 받아 사역하는 자를 목회자라 한다. 현대교회 목회자는 교회행정가로서의 역할이 부여되어졌고, 목회자는 목회행정가로서 준비되어야 하고 행정을 담당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교회행정이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한다. 왜냐하면 목회자 중심의 교회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목회자 중심의 교회행정과 교회 성도들의 행정참여가 없다면 목회자의 업무과중은 당연한 것이다. 학자들에 따르면 목회자가 행정에 쏟는 시간은 전체 목회에 집중하는 시간의 3분의 2라고 한다. 설교, 상담, 교육, 예식집전, 행정 등 목회자의 많은 업무 가운데 목회자에게 가장 큰 긴장을 주는 것이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담당해야 할 갖가지 업무 가운데 가장 힘든 업무가 행정이며 그런 의미에서 시간을 소모하는 업무(time-consuming job)라고 할 수 있다. 한국교회의 많은 교회가 목회자 중심의 교회행정을 담당하고 있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며 이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둘째, 당회 중심의 교회행정이다. 한국교회는 목회자 중심으로 교회행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일부 교회는 당회 중심으로 그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병폐는 독재하려는 목회자와 그 교회 장로간의 긴장관계와 알력다툼으로 빈화되기도 한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정은 국민의 대표로 뽑힌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중직들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 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하고, 교회의 전체 구성원인 성도들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기득권과 비기득권의 차별, 담임목사와 장로간의 싸움으로 교회에 많은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그리고 담임목사와 장로들 간의 모종의 결합이 있는 경우 교회는 소수의 이익만을 위한 단체로 변하기 쉽다.

반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세우신 목적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자신의 직임을 통해 자기 욕망을 실현하려 하고 세력을 이루거나 세력을 장악하려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난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장로는 목사를 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세움 받은 자라는 것이다.[98]

이러한 한국교회 행정의 현 상황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생각해 볼 때, 한국교회의 현실에서 교회행정이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장애 요소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첫째, 등록 교인의 관리나 책임 의식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한 사람이 교회에 참석해서 등록교인이 되도록 교회 회원의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은 교회행정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일이다.

둘째, 한국교인들은 교회행정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교회생활을 신비적으로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사용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그에 따르는 결과를 예측하여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법을 채택하는 과정을 영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영적이라는 말을 오해하여 교회행정학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는 경향을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경계해야 한다.

행정담당자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경향에 대해서는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어디까지나 교회행정은 하나님의 뜻을 좇는 인간들이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이라는 형이상학적인 말로 행정을 오해하게 하고 어설픈 행정으로 이끌면 안 된다.

어설픈 행정은 영적인 성장도 가져오게 할 수 없을뿐더러 화합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갈등만 만들어낸다. 행정이 매끄럽지 못하고 지엽적인 관리 기술에 메어 있고, 권위적이고 통제적일 때 갈등이 일어난다. 영적 권위를 너무나도 강조하다 보면 목회자의 영적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행정에 있어서도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너무나 권위적이거나 통제적인 행정이 있으면 갈등은 일어난다. 이성희 목사는

---

98) 정일웅, "한국교회 정치, 행정 구조의 개선방향," *빛과소금* (1994). 80-88.

행정이 매끄럽지 못해 발생하는 갈등이 교회 갈등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99] 행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다면 이러한 갈등은 없을 것이다.

셋째, 민주적인 과정을 무시하는 태도가 교회행정을 파행적으로 만들기도 한다. 하나님이 교회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심은 분명하나, 하나님이 교회를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끄실 때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민주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다수결의 원칙을 떠올리는 것이 일반적일 테지만 다수결이 완벽은 아니다. 그러나 민주적인 방법을 무시하고 교회행정을 독단적으로 하는 교회가 있고, 목회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교회의 바른 행정과 통치의 모습이 아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교회가 조직화되고 관료화되어 갈수록 인권통치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신권통치가 인정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간에게 권력과 행정의 모든 결정권이 몰리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에 의해 흘러갈 수가 있다. 일반 행정과 교회행정의 큰 차이점이 여기에 있다.

넷째, 비체계적인 교회행정이 교회를 흔들리게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회행정 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행정도 그만큼 따라 줄 것이며 행정이 있기에 사역을 펼치는 것에 있어서도 수월하고, 어느 한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기보다는 행정과 교회의 방향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

흔히 사회에서 사용하는 졸속행정은 행정담당자의 무능함과 게으름과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교회에서 행정을 포함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졸속행정은 없어야 하며 행정을 멀리 보고 길게 봐서 차근차근 체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이 교회 사역을 너무 얽어매지 않도록 재량을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교회가 보다 사역하기에 좋고 교회의 성도들이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행정의 체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행정이라고 하면 왠지 딱딱하고 인위적이고 권위적인 느낌을 떠올리게도 한다.

이는 행정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다. 행정은 딱딱한 것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고 걸림돌을 제거하고 막힌 것을 뚫어주고 권위적인 구조를 민주적인 구조로 만들

99) 이성희, *교회행정학*, 12.

이 주는 활동이다. 경직된 행정은 이미 병든 행정이다. 행정은 통제하고 감독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경직된 행정을 만든다. 이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행정이해이다.[100]

다섯째, 참된 행정교육과 행정가의 부재가 한국 교회행정의 부족한 부분이다. 행정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 지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권세를 가지고 지시하고 명령하며 세도를 부리는 헤드쉽(Headship)을 생각한다. 그래서 권력에 집착한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다. 예수님은 참 된 권위는 섬김에 있다고 가르치셨다. 즉 섬기는 자가 되고 섬지이 종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셨다. 종의 도를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기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행정가는 군림하고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다. 앞장서서 행하며 섬기는 사람이다. 섬김과 종 됨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행정의 본질이다.[101]

참된 교회의 행정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권력을 탐하고 제대로 된 목양을 하지 못할 때 가르침을 주셨던 것처럼 교회의 행정을 위해서는 진정 행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올바른 행정가가 한국교회의 롤 모델로 나타나서 교회행정의 바른 모습과 방향을 만들어 가야 한다.

여섯째, 교회행정이 성경적이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교회 공동체의 성립의 근간이 되는 성경이 교회행정의 배경이 되지 않는다면 행정은 존재하나 교회가 건강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의 교회행정을 통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날 교회들이 선교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회과학의 자원들을 빌려오고 사용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최근에는 교회가 좀 더 효과적인 목회를 하기 위해 또 다른 사회과학을 사용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행정이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 행정의 개념과 방법들을 빌어왔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행정에 대한 성서적,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구약과 신약은 각각 교회행정의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102] 구약과 신약이 제공하는 교회행정의 근거에는 공통점이 있다. 우선 많은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교회행정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요청된다. 사람이 많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지도자의 임무가 과중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지도자의 업무과중 그 자체는 문제

---

100) 홍정근, "교회에 맞는 교육행정은 어떤 것인가," *교육교회* 260 (1998), 43.
101) 마가복음 10:35-45.
102) 출애굽기 18:13-27, 사도행전 6:1-7.

가 아니지만 지도자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것은 공동체의 위기인 것이다.

구약과 신약은 공통적으로 사람을 세운다. 구약은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이라는 지도자를 세우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와 70인을 세우고 초대교회에서는 일곱 사람을 세운다. 구약에서는 모세의 지명으로, 신약에서는 회중들이 선택하여 세웠다. 그 결과 백성들은 만족하였고, 교회는 성장하였다. 이것이 교회행정의 성경적 근거이며 교회행정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것이다.

교회행정이란 사람이 많을 때에 지도자의 업무가 과중하게 되므로 사람을 세워 업무를 분담해 주는 일이다. 그리고 교회행정의 결과는 만족과 교회 공동체의 회복이며 성장이다. 그러므로 교회행정의 성경적 근거에서도 사람에게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교회행정은 사람을 세우는 일 그 자체이다.[103]

2. 교회행정의 구조상 문제점

가. 교회행정

교회행정은 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과 그 조직의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행하는 것이므로 교회의 목적과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노력을 집중시켜야 한다.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교회행정을 맡은 사람으로서 교회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하며, 또한 교회행정을 이해하고 발전시킬 때 자연적으로 교회는 성장하고 공동체성은 회복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행정의 뚜렷한 이해나 어떤 표본이 없이 각자 교회 중심으로 운영, 관리하는데서 오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급속한 성장 내면에 노출되지 않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104]

첫째, 한국교회 목회자의 능력문제이다. 목회자는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인도하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며, 치유하고, 권면하는 영적인 지도자이다. 교인들은 목회자로부터 배우고 따라하게 된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인간적으로 훌륭해야 하며,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

103) 이성희, "교육목회를 위한 행정-교회 행정의 성경적 이해," *교육교회* 362 (2007), 16-17.
104) 임택진, *목회자가 쓴 목회학*, 61.

그러나 오늘날 소수의 목회자들은 이 부분에 대한 결격으로 인해 교회에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지도자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아야 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볼 때, 목회자는 성경적인 삶을 살아야만 한다.

둘째, 목회자의 설교 문제이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자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사명을 부여 받았고, 하나님의 사신으로써 순수하게 사실 그대로 선포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전해야 한다. 왜곡된 말씀 선포는 혼란만 가중시키고 바람직한 조직과 운영을 가져다주지 못한다. 이것은 개교회주의적 사고가 팽배한 교회일수록 그 정도가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인사행정의 문제점이다. 교회행정에 있어서 인사행정은 일반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인사행정과 그 맥락이 다르며, 교역자간의 대상이 아니라 전교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조직하여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동참시키느냐가 주된 목적이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조직행정의 문제점은 반지성적인 권위주의에서 파생한 무원칙적인 것에 기인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 결과 교역자가 정년이 되어 은퇴하게 될 때 노후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교역자 및 교회직원을 선택하게 될 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직원을 선택하게 된다. 그뿐 아니라 매년 연말에 가서는 사례비에 대한 어떤 일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교회 저 교회의 예산안을 살피며 눈치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여 결국은 교회와 목회자간에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일은 한국교회의 인사행정과 조직행정의 단점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장기적인 인사관리 계획이 없고 그때그때 인사관리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인적자원의 개발은 교회내의 인재를 발견하는 일인 동시에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일, 인간의 잠재능력을 개발하는 일, 교육하고 평가하는 일, 그리고 교회에 있는 최상의 인적 자원을 발굴하여 교회의 목적에 맞게 배치하는 것이다.

현대 사회를 조직사회이며 현대인을 조직 인간이라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생활의 대부분이 협동을 필요로 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충족도 조직을 통해서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직은 인간이 어떤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불가결한 요소이며 어떠한 공동체든지 발전요인의 동적 요인이 되는 것이 조직인 것이다.[105]

넷째, 교회행정과 목사들의 문제이다. 하나님 중심적이고, 인간 지향적인 교회행정은 구속적 인간관계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를 통해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도구이다. 그러므로 교회행정의 궁극적인 결과는 개개의 교인들을 그리스도를 통해 결속시킴으로써 능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교회재정

교회재정이란 교회가 교회활동의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조달 관리 사용하는 경제활동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다시말해서 교회재정이란 교회의 경제활동을 말한다.[106]

교회행정이라 하면 재정 관리를 연상할 정도로 재무관리는 교회생활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교회의 재정자원을 관리하는 과업은 효과적인 교회 사업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일 뿐 아니라 교회의 재정자원에 대한 훌륭한 관리행정은 교회가 그 목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불가결한 요소이다. 이것을 잘못 관리하면 교회의 효율을 저해시키는 문제를 야기 시킨다.[107]

교회재정의 본질은 교회재정을 계획에 의거하여 필요한 헌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교회 사역의 합리화를 꾀하는 데 있다. 교회 재무행정은 교회의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활동이다. 교회가 그 기능을 발휘함에 있어 요구되는 제반 요소를 소비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기능의 확대는 교회가 영위하는 재정규모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정 관리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공동체로서의 교회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재정 관리를 위한 행정을 재무행정이라 한다면 교회에 있어서의 재무행정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그 교회 안에 상호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근본적인 뒷받침이 되며 교회의 발전과 부흥에 근본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원래 재정이라는 용어는

---

105) 홍의표, *현대 교회 행정학* (서울: 보문출판사, 1996), 41.
106) 김석한, *교회행정학* (서울: 성지출판사, 1992), 465.
107) 김석한, *교회행정학 개론*, 111-112.

한 공동체의 금전에 의한 수입 및 지출을 뜻하는 것이고 헌물에 의한 물질의 수납 및 지불은 포함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교회재정은 교인들이 헌금으로 조달되는 특수성에 비추어 금전 외에도 헌물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교회재정의 특징

교회재정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08] 첫째, 교회재정은 청지기 직무의 대상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청지기 직무란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교회에 맡겨주신 재물을 주인의 뜻에 맞게 잘 관리하는 직무를 말한다. 교회재정은 하나님이 교회에 맡겨주신 재물이다. 충실한 청지기로서 그 직임을 다하여야 하며 불의한 청지기가 받을 책망을 두려워하여야 한다.

둘째, 교회재정은 행정관리의 대상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교회재정은 그냥 적당히 거두어들이고 쓰면 되는 재정이 아니다. 개인, 가정, 기업 그리고 국가의 모든 재물이 다 그렇지만 교회도 그 재정운영이 행정적 의미를 담아내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행정적 의미를 담아낸다는 말은 행정의 가치들이 재정운영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의 능률성, 효과성, 민주성, 경제성, 합법성 등 제반 행정가치들이 반영되어야 하는 행정의 대상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셋째, 교회재정은 신학적이고 행정적인 면을 떠나 현실적으로 교회가 일반 세속의 법률의 지배를 받는 면이 있다. 교회는 민법 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이다. 따라서 교회 헌금행위는 법률상 법인에 기부하는 행위이며, 그 재정은 공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담임목사라 하더라도 교회 재산을 마음대로 유용할 수 없다. 그것은 형법상 공금횡령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교회재정은 합법적인 재정절차에 따라 재무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108) 황성철, *교회정치 행정학*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4), 299-301.

(2) 교회재정 운영의 문제점

교회는 오랜 역사를 통하여 신앙과 재정이라는 양면의 상호 함수관계를 유지하면서 꾸준한 발전을 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교회의 재무행정은 독립된 분야로 확보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교회재정 제도의 본질과 성격을 평가하는 척도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성경과 초대교회 원리가 그것이다. 우선 교회의 본질과 성격은 성경이 규정지어 준다. 교회재정 제도에 있어서 성경은 절대 평가 척도이다. 그것은 교회재정 제도의 본질, 목적, 성격, 방향 등을 성경에 규정지어주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교회생활의 선행기준이 된다.

교회재정 제도의 또 하나의 중요한 척도는 초대교회 원리이다. 초대교회 원리란 기독교의 원형을 대표하는 초대교회 가운데서 적용되었던 원리들을 말하는 것으로 가장 순수한 교회원리로 인정된다.

한국교회의 재정 규모는 비약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에 알맞은 재정에 대한 관리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헌납한 재물이 비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 와서는 교회 재정 구조에 대한 비판과 질타가 교회 안, 밖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교회재정 운영에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 원인 중 첫째는 재정구조의 문제이다. 한국교회의 재정구조에 가장 큰 문제는 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개교회주의이다. 개교회주의란 교회가 그 목표를 설정하고 활동을 전개하며 교회 내에서 인적, 물질적 자원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개별교회 내부의 문제, 특별히 개별교회의 유지와 확장에 최우선 권을 부여하는 태도 또는 방침을 말한다. 각 교회가 자체 교회에 의하여 성장해 왔기 때문에 교회재정의 흐름도 개교회 중심적이다.

둘째, 근시안적 운용에 따른 문제이다. 교회재정을 잘 운영한다는 것은 현재하고 있는 일이 장기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볼 수 있는 능력, 장기적으로 재정을 처리할 마음과 통제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재정운영 지혜의 본질은 미래에 관한 것이다. 근시안적 운용은 교회재정 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양산시킨다.

셋째, 재정 사무에 대한 문제이다. 각 교회에는 제직회가 있고 그 제직회 안에 재정부가 있다. 그리고 교회 회계가 있어서 재정 관리를 하고 있으며, 정기 제직회를 통해 월수입 및 월 결산을 보고하여 통과시키고, 연말이나 연초에 공동의회를 통해서 예산과 결산을 통과시킨다.

그러나 재정사무는 각 교회마다 일괄성이 없다. 한국교회의 재정사무는 여러 형태로 집행되고 있다. 대형교회나 대도시의 중형교회는 재정사무에 전문가가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재정사무에 어두운 성도들이 맡고 있다.

넷째, 교회재정 관리의 문제이다. 한국교회의 총수입이나 총재산을 계산한다는 것은 지극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다. 한국교회의 재정구조는 개교회적 차원 및 지역적, 교단적, 한국교회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그 문제점들이란 평신도들에게 재정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폐쇄성에 있다.

많은 교회들이 이처럼 문제에 직면하고 있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기도와 개선적인 행정 도입을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다. 권위적 구조

한국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권위주의의 문제점은 지도자들이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힘의 지배에 의한 억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십자가는 타인에게 전가하고 자신은 부활의 기쁨만 가지고자 한다는 것이다. 책임은 남에게 전가하려하고 자신에 대한 비판은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인식하고 강하게 거부한다.[109]

권위주의적인 한국교회의 풍토는 팀(Team) 목회를 불가능하게 한다. 대형교회들 역시 오직 담임목사 한 사람만이 교회행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부교역자들은 수직적인 관계에서 담임목사의 목회 보조수단에 불과하다. 모든 활동은 담임목사의 지시와 허락에 의해 이루어지며 담임목사의 목회방침에 의해서만 사고해야 한다.

모든 권한이 담임목사 일인에게 집중되어 담임목사에게 일차적으로 순종적이어

109) 박근원, "현대교회와 개방적 목회," *기독교사상 239* (1978), 91-102.

아 직분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체질화된 구조 속에서는 담임목사가 은퇴하면서 자신의 아들에게 세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국은 유교적인 영향으로 권위적인 행정이 많이 있다. 이것은 평등의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인간관계이다. 이것은 당연히 권위를 가진 상층부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하층부는 책임의식이 약하게 된다. 한국교회의 권위주의적인 행정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국 국민의 의식 구조를 보면 아직도 전근대적 사고체계 속에서 살고 있다. 전통 지향적, 보수적인 문화, 관료적, 봉건적인 권력구조, 불평불만을 당연시 여기는 듯한 계층적 의식구조 등을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갖고 있는 한국교회는 이미 그 배경 속에 권위주의적 요소를 내재하고 있다. 여기에 기독교의 교리와 신앙이 지니는 여러 가지 특성과 확신이 혼합되어 매우 특이한 권위주의 형태가 만들어져 있다.

이런 한국교회 행정의 권위주의 문제는 강제성, 형식주의화, 인간성의 상실, 부사안일주의 현상, 독선이 나타난다. 전문적인 기식이나 기술의 부족은 교리 지상주의적 권위주의를 낳게 되고, 그 결과 어떤 학문적 조언을 용납하지 않는 유아독존주의적 신앙의 독선을 가져온다. 이것이 교회행정에 적용될 때 독선, 관료주의를 가져와 민주행정에 역행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런 한국교회의 권위주의 문제의 구성요인으로는 첫째, 목회자와 평신도의 관계 이해가 비성경적인 것을 들 수 있다. 목회자도 성도 중 한 사람이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사자', '주의 종' 심지어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식되는 권위주의적 사고가 생겨난다.

둘째, 교리 제일 주의적 배경이다. 어느 교파의 신앙고백이나 교리를 절대시하여 교리 제일주의의 경향을 띠게 될 때 그 속에는 독선과 신앙적 배타주의와 신앙 획일주의라는 권위주의적 단면들이 형성되어 진다. 그리고 자기 교파의 교리를 절대시하는 분위기 속에서는 결국 그 교리를 신봉하는 자신의 신앙 체계까지도 절대화하여 철저한 권위주의자로 변모하게 된다.

셋째, 신앙 이해에 율법주의적인 현상이다. 율법주의는 사랑을 잊어버린 채 법칙에 따를 것과 순종을 강요한다. 이런 율법 주의적 경향이 신자들 속에 만연하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이해하기 보다는 정죄하고 비판하는 현대적 바리새 주의적 신앙

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회에서는 유교식 서열의식의 영향으로 성직자와 평신도의 관계 또는 교회 안의 직분을 위계식 서열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교회의 평신도를 일반 기업의 평사원과 비슷한 의미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 기업에서의 평사원은 부장, 과정과 같은 특별한 지위가 없이 가장 낮은 직급에 해당하는 일반사원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와 같이 교회에서도 평신도를 장로나 집사의 직분이 없는 일반신도를 가리키는 말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로나 집사 역시 평신도이다.

이와 같이 교회의 제도화는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염려하여 제도화를 거부한다면 교회는 매우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어 본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존속 자체가 어려워 질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필요한 조직과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이 제도가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의 규모를 최소화하고 조직 안의 권한과 책임을 최대한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조직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교회행정이 필요한 것이다.

제 2 절 교회행정의 필요성

교회행정은 반드시 성경에서 그 원리를 찾아야 하며 교회의 현 상황에서 성경적 교회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공동체성이 상실되어가는 시기에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올바른 교회행정이 꼭 필요하다. 교회행정은 공동체를 효율적이게 하고 견고히 하기 때문이다.

1. 교회행정은 교회 공동체를 효율적이게 한다.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세신자의 보호육성, 구역관리, 교회학교의 운영관리, 남녀전도회와 청년회, 학생회의 신앙생활 지도와 관찰, 직분자의 훈련과 제정 출납의 조정, 회계의 기록, 출납 사무의 체계화, 교회 건물의 유지와 관리, 직원의 사역 등을 위

해서 의무와 권리를 공평하게 분배하고 처음 맡은 임무에 대해서는 지도하고, 잘못되는 일을 미리 예방하는 일이 필요하게 되었다.

현대의 교회는 복잡한 조직 생활이 되어 인원이나 규모에 있어서 크기가 거대화되고 있다. 이런 교회를 효율적으로 목회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조직과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 즉 교회가 감당해야 할 근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행사와 그 행사에 대한 행동을 위해 명령, 계획, 조직, 통제의 절차를 합리적으로 만들고 상황의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을 한정된 시간 안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교회행정이 필요한 것이다. 교회의 큰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예배, 전도, 교육, 봉사의 기능적인 면에서 교회행정의 필요성을 살펴보자.

가. 예배

성경은 예배드릴 것을 명령한다. 그것을 시편 29편 2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찌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높여 드리며, 그분이 하신 일들에 대해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 거룩한 성전으로 모여서 경배를 드렸고 신약에 와서는 성도들의 가정이나 각 처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셨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찬미와 공동 예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을 보면 그들은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성도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면서 정성을 다하는 예배와 생활로서의 예배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간의 대화라고도 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다.[110] 이처럼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정성을 다해 드려야 한다.

---

110) 요한복음 4:24.

예배를 정성스럽게 잘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에 절차가 잘 따라와야 한다. 예배가 절차에 따라서 잘 드려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준비가 필요하다. 그 준비를 위해서 예배 위원을 선정하고 예배 위원을 교육하는데 있어서 규칙이나 절차가 필요하다. 대형 교회일 경우에는 예배를 위해서 행정은 더욱 절실한 것이 된다. 수많은 성가대, 많은 성도와 직분자들, 주일 하루에도 몇 번씩 드려지는 예배 등 이런 복잡한 관계에 있는 교회에 예배를 정성껏 드리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절차와 치밀한 계획에 의한 행정이 꼭 필요한 것이다.

나. 선교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고 이후에 선교를 하는 교회의 시초가 되었다.

신구약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니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르시는 선교의 책이라고 말한 전호진은 그의 책 선교학에서 선교는 교회에 속한다고 하면서 교회가 선교를 외면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111] 그러나 선교가 교회에 속하기보다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위임한 사명이라는 인식이 보다 더 근원적으로 인식되어져야 한다.

선교는 곧 교회 존재의 이유이며 교회 본질인 사도적 직분과 깊은 관계에 있다. 선교와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인류구속의 의지에 근거한다. 장중열 교수는 이처럼 선교를 하나의 신학적 부산물과 역사적 현상으로 보지 않고 교회의 선교적인 본질로 봄으로서 교회와 밀접한 관계로 보고 있다.[112]

이처럼 교회의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라 할 수 있는데 이 선교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도 행정은 필요하다. 전도지를 제작하는 것, 선교 및 전도팀을 구성하는 것, 선교(전도) 교육을 시키는 것, 선교지 선정과 전도 대상을 선정하는 것, 어떤 팀을 어떤 곳으로 보내는 것 등을 준비하고 선정함에 있어서도 그

111) 전호진, *선교학*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85), 37.
112) 장중열, *교회성장과 선교학* (서울: 성광문화사, 1978), 20-21.

절차를 위한 행정이 필요하다.

다. 교육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 내용들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님의 교훈,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서신서에서 이야기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 자세, 그리고 구약성경의 사건들과 교훈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교육되고 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 올바르게 알도록 교육하는 것과 바른 신앙인으로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교육은 필수적인 것이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썼다. 교육은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기독교의 진리를 의식적으로 가르쳤던 것이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은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쳤다. 그들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113]. 이 교육에 있어서 교역자 선정, 교육 커리큘럼, 대상별 반 구성, 계획과 실시를 위한 교육위원회 구성 등에 행정과 조직은 필요하다.

라. 봉사

초대교회는 하나의 마음으로 서로 돕는 교회였다. 어떤 이들은 자기의 소유를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오기도 했다.[114] 가난한 자들을 구제함으로 사랑을 나타내고 같이 떡을 떼는 초대 교회처럼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는 사랑이 교회가 할 일이다.[115]

성경적인 뜻에 맞게 봉사는 현대 한국 교회의 사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역으로

113) 사도행전 5:42.
114) 사도행전 2:44-46.
115) 마태복음 25:35-36.

등장하고 있다. 이떤 교회에서는 아예 사회 봉사기관을 세워서 직장 교육, 탁아시설, 의료시설, 경로시설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조직적으로 그리고 꼭 필요한 지역에 봉사의 손길을 닿게 하기 위해서 올바른 봉사지역의 선정, 봉사를 실천하는 기구의 조직과 운영, 봉사에 필요한 인원동원과 물질 동원 등등에 있어서 행정은 필수적이다.

이처럼 거대한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행정은 필요하다. 물론 행정이라는 것은 행정의 결정과정을 통해서 조직을 하고 조직된 것을 변경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런 여러 가지 각각의 기능을 한 교회가 통합하고 배치하고 분산하는 사항까지도 고려해야 하므로 더욱 복잡한 구조와 형태를 다룸에 있어서 행정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교회의 공동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바로 교회 행정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현대 교회는 이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조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다양해진 조직을 잘 통솔하면서 이끌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보호하며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가르치며 돕고 그들의 모든 은사를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하며 살아가도록 협력하게 하고 사용하게 하며 나아가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교회행정의 확립이 필요한 것이다.[116]

2. 교회행정은 공동체를 견고히 한다.

교회행정은 교회에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 교회가 행정을 한다.[117] 에베소서 4장에서 각 직분을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서 바울은 주께서 주신 권세인 사도직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유가 교회를 세우려 함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주께서 주신 권세란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행정력을 발휘해서 교회를 관리하게 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교회행정은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게 한다.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행정을 한다는 말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며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하나 되게 하신 사역이었음

116) 임택진, *목회자가 쓴 목회학*, 139.
117) 손병호, *교회행정학 원론*, 97.

을 볼 때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118] 이를 위해서 교회행정이 있는 것이다.

교회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구성원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각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취향을 갖고 서로 다른 목표를 지향할 수도 있다. 이때 그 구성원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교회행정이 해야 할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획일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양성 속에서의 통일성을 지향하는 것을 추구한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유기체를 이루고 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사역을 좇아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다스림이 필요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안에서 교회만이 지니는 근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 규정과 계획 그리고 조직과 명령, 통제의 수단을 합리화하는 것이어야 한다.[119] 하나님의 뜻에 합치된 교회는 서로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그들과 친교하며 나아가 믿음을 같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공동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행정은 교회공동체의 업무를 분담함으로 교회공동체를 견고하게 만든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와 장로들이 어떤 일을 의논하려 모여서 서로 변론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회의 체제를 이루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도행전 6장에서는 일을 서로 분담하는 장면이 나온다. 구제하는 일은 집사들이하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한다는 장면이 나온다.

이것은 일이 많아지고 복잡해지면서 서로 업무를 분담하고 조직을 정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효율적으로 교회공동체를 운영해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행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을 잘 보여주는 성경적 근거라 할 수 있다.

교회의 기능을 이야기 할 때 행정이 없다면 임기응변식으로 될 수 있고, 또한 질서가 없어서 혼동이 될 수도 있다. 명령 하달, 계획, 조직, 수행, 평가 등에 질서가 있는 잘 구비된 행정과 조직은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절차가 있고 투명해서 보다 더 공동체를 잘 이끌어 가도록 도와준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를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하는 것은 바로 교회행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

---

118) 에베소서 4:3-5.
119) 조동진, *교회행정학*, 19.

미에서 교회행정은 교회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제 5 장

공동체적 교회행정을 위한 사례연구

다음은 실례로서 한국에서 성장하는 교회의 요인으로서 행정의 위치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 방법으로 우선 그 교회의 목회철학을 통해서 그 교회가 지향하는 방향과 그 방향에 의해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개 교회에 대한 집중적인 논문이 아니라 행정과의 관계를 살피고자 하기 때문에 두 가지로 요약하여 그 실례를 들고자 한다. 첫째, 교회 목회자의 목회철학을 살핀다. 둘째, 그 교회의 중점이 되고 있는 행정 내용을 살핀다.

이러한 내용을 기준으로 많은 교회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선교행정이 체계화 되어 있는 지구촌교회, 교육행정이 앞서 있는 만나교회, 인터넷 행정이 잘 되어 있는 분당우리교회를 예로 들어 그 실례를 살핌으로 교회행정이 잘 이루어졌을 때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 공동체가 일마나 효율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는지 살피고자 한다.

제 1 절 지구촌교회[120]

공동체적 교회행정을 위한 사례연구로 먼저 지구촌교회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구촌교회는 타 교회들보다 특별히 선교행정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진 교회라 볼 수 있다. 그래서 먼저 지구촌교회의 목회철학을 살피고, 어떤 방식으로 교회행정이 체계화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평가해 보고자 한다.

---

120) 지구촌교회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 필자는 지구촌교회 주보, 교회요람, 간행물, 교회 홈페이지(http://www.jiguchon.org) 등을 참조하였으며, 2012년에 교회를 직접 방문하여 예배드리며 부교역자들과 몇 분의 성도들과 인터뷰를 통해 도움을 얻었다. 참고 도서는 이동원 원로목사와 진재혁 후임담임목사가 함께 편찬한 *아름다운 동역: 동역으로 펼쳐가는 하나님 나라* (서울: 규장, 2011)이다.

1. 목회철학

지구촌교회 목회사역철학은 골로세서 1장 23-29절을 근거로 다음과 같다. 첫째, 지구촌 교회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이라고 고백한다.

둘째, 평신도를 포함한 교회의 모든 사역자는 복음의 일꾼이요 동시에 교회의 일꾼이라고 믿는다. 셋째, 교회 사역의 두 가지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방인 가운데 나타내는 일(전도)과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성숙한 자)로 세우는 일(양육)이라고 믿는다.

넷째, 교회 사역의 가장 중요한 현장은 그리스도를 공적으로 선포하는 예배의 장과 치유와 성숙을 목적으로 하여 각 사람을 가르치고 권면하기 위한 마을 목장의 장이라고 믿는다. 다섯째, 교회의 사역자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며 필요하다면 기꺼이 고난을 받는다.

특별히 지구촌교회는 철저한 성서교육과 복음 전도 훈련 그리고 선교훈련을 통하여 구원받는 이들을 날마다 더해가며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역동적인 교회성장을 추구하여 공동목회에 의한 세계복음화의 이상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탄생되었다.

지구촌교회는 이러한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전략을 세웠는데 첫째,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길러내기 위한 체계적인 성서교육을 전 교회적으로 실시한다. 둘째, 전 교인을 대상으로 전도 훈련을 실시함으로 성도들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전도를 생활화 하도록 한다. 셋째, 한국과 미국의 교회를 연결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한 선교훈련을 실시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세계선교에 적극적으로 헌신하게 한다.

이러한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구촌교회의 교회상은 성도를 말씀으로 세우는 훈련공동체, 가정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치유공동체, 미래의 지도자를 세우는 공동체, 지구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이다.

2. 선교행정이 체계화 되어 있는 교회행정

지구촌교회는 무엇보다 선교행정이 탁월하게 잘 조성되어 있다. 지구촌교회의 선교의 특징은 셀과 선교의 연결이라고 볼 수 있다. 지구촌교회의 선교는 선교사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이 바로 선교임을 나타낸다. 지구촌교회의 사명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소속된 목장교회를 통하여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 평신도 선교사로 훈련되어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구촌교회는 2009년까지 파송선교사 46가정, 협력선교사 160가정을 파송하고 후원하고 있으며, 선교가 교회성장의 동력으로써 2010년부터 목표를 잡고 선교를 감당하고 있다.

선교목표는 300명의 해외선교사 파송과 100명의 파송선교사, 200가정의 협력선교사를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고 장단기 선교로 선교사를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선교를 감당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선교행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해외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구촌교회이다.

예를 들면 지구촌교회의 파송선교사와 협력선교사들은 연결된 목장과 교회에 수시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 선교보고와 안부를 묻는 형태로 이메일과 전화를 통하여 연락을 하고 있다. 행정적으로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필요한 사역이 무엇인지 요청하고 요청한대로 사역을 지구촌교회에서 물질후원과 단기선교팀(의료선교, 이미용선교 등)을 파송하는 것으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행정적 처리가 결국은 선교지와 지구촌교회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기도의 힘이면서 그러한 기도의 힘을 가져올 수 있는 행정의 힘이기도 하다. 그리고 지구촌교회 홈페이지와 전화방문을 통해서 알 수 있을 테지만 지구촌교회의 선교는 선교부에서 선교일정을 한 해의 마지막 분기에 받아서 1년 단위로 일괄적으로 정리되어 이루어진다.

선교 계획이 당해 년이 아닌 전 년도부터 계획이 세워지고 지원을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선교팀 모집 및 후원회 등의 행사를 한다.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은 가을 정도에 다음해 선교 지원이 필요하거나 단기선교팀 요청을 위한 제안서를 보내게 되어 있다. 선교지의 교회성장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인이 될 수 있으며 선교지와 지구촌교회와의 지속적이고 영적인 연락을 위하여서 필요하다. 사역

요청을 하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사역지원이 끊어지는 일들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선교행정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체계를 잡게 되니까 큰 교회이면서도 모든 선교지에 필요한 선교지원을 매년 감당해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선교지에 대한 점검이 교회 선교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교회는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어서 교회에 광고와 홍보를 통해 선교팀을 구성하고 단기선교팀을 파송하는 일들을 감당해 내고 있다. 선교행정의 힘이라고 볼 수 있다.

지구촌교회의 선교비전은 네 가지가 있다. 첫째, 전교인 선교동력화이다. 지구촌교회는 전교인이 세계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역 형태와 방법 등을 제시하고 훈련을 통해 동력화한다. 셀 자체가 국내 선교를 감당할 수 있으며 해외 선교를 감당할 수 있다. 지구촌교회 셀 컨퍼런스에 참여해 보면 지구촌교회의 국내외선교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다. 전교인이 선교를 사명으로 알고 있으며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선교를 감당하고 있다.

전교회적으로 어른 목장에서는 소그룹 구성원들이 헌금을 내고 한 명을 단기선교 보내는 것을 감당하고 목장헌금은 전액 선교헌금으로 드려지고 있으며 교육목장 안에서도 아이들이 적은 금액이지만 한 친구를 셀에서 파송하며 선교를 다녀올 수 있는 형태로 선교를 감당하고 있다.

둘째, 훈련된 선교사 파송이다. 이 비전이 지구촌교회의 선교사 파송에 있어서 선교사가 되어 파송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한 번 파송을 받으면 정말로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선교사를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며 준비시켜서 선교가 필요한 적절한 지역에 적절한 사역으로 적절한 시기에 파송하여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균형 잡힌 선교자원 배치이다. 균형 잡힌 선교사역을 위하여 기존 파송, 협력 선교사와의 팀 사역을 통한 집중 사역과 선교의 흐름에 필요한 전략적 선교지를 선택함으로 효율적인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넷째, 교회개척 운동이다. 선교에 있어서 교회개척은 필수이다. 토착교회 설립을 넘어 생산력 있는 교회를 재생산하는 교회개척 운동(CPM: Church Planting Movement) 사역을 추진하며 이러한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교단, 파송단체, 훈련 연구

기관 등과 함께 동반자 선교를 진행한다.

지구촌교회는 그 교회의 비전에 맞도록 선교행정을 감당해내고 있으며, 지구촌교회라는 이름에 맞도록 교회가 지구 전체를 하나의 마을로 여기고 돕고 섬기는 일들을 감당해 내려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도 여전히 지구촌교회 안에서는 지구촌교회 성도이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이다. 그래서 파송을 할 때도 신중하게 하며, 파송 이후에도 가족처럼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면서 선교를 감당하고 있다.

지구촌교회는 해외선교 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선교도 잘 감당하고 있다. 국내선교로는 북한 선교, 교도소 선교, 병원 선교, 스포츠 선교, 농어촌 선교, 미자립 교회 지원 등을 감당하고 있다. 국내선교도 해외선교와 마찬가지로 선교지를 미리 파악하고 선교지에서 들어오는 선교지원 요청들을 정리하고, 정리된 자료를 토대로 선교지원 행정을 준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의료 선교팀은 해외의료선교를 방학을 통해서 여름과 겨울에 감당하고 있다. 국내의료선교는 외국인근로자를 치료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 작은 교회들도 의료선교로 지원하고 있다.

세계 재난 지역에 대한 의료 파송도 정기적인 행정이 아닌 재난 발생 시에 감당하고 있는데, 딱딱한 행정이 아닌 부드러운 행정, 그리고 의료선교가 필요한 지역에 갈 수 있도록 행정이 짜여 있어서 재난 지역에서 의료 선교도 감당하고 있다. 의료선교팀에서는 다른 선교팀에 의료 약품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역도 감당하고 있다. 선교행정 중에서 군선교가 가장 확실한 행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은 사역에 대한 보고와 그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조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팀은 1년 스케줄을 잡아서 각 부대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정확한 일자에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있다. 군선교의 형태는 이등병 환영예배, 세례식, 교회와 연결된 군대의 자매교회 지원, 교육지원, 겨울에는 사랑의 온차 지원, 위문품 보내기 등으로 군 선교 행정을 감당하고 있다.

3. 평가

지구촌교회는 교회의 분명한 비전 아래서 그들만의 행정을 체계화시켜서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 지향적 교회이다. 지구촌교회의 선교 지향적 사역의 모습이 선교행정을 전부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을 발전시키게 되었으며, 교회의 교인들이 가능하면 많은 숫자가 선교 안에 들어오게 되었기에 지구촌교회의 놀라운 성장이 일어났다고 본다. 지구촌교회의 선교는 그들만의 선교행정을 감당하는 교회이다. 큰 교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 맞는 선교행정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다.

선교에는 일정한 형식은 없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선교이다. 정해진 형식도 없고, 선교는 이래야만 한다는 당위적인 방법도 없다. 그러나 무형의 선교를 교회라는 조직 안에서의 교인들이 잘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이 준비되어 있어야 교회가 선교를 감당하면서 흔들림이 없다. 그래야만 교인들간에 분열이 없으며 교회공동체가 든든히 서 갈 수 있다.

제 2 절 만나교회[121]

공동체적 교회행정을 위한 사례연구 두 번째로 만나교회를 살펴보고자 한다. 만나교회는 특별히 교육행정이 앞서 있는 교회라 볼 수 있다. 그래서 먼저 만나교회의 목회철학을 살피고, 어떤 방식으로 교육행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고 평가해 보고자 한다.

---

121) 만나교회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 필자는 만나교회 주보, 교회요람, 간행물, 교회 홈페이지(http://www.manna.or.kr) 등을 참조하였으며, 2012년에 교회를 직접 방문하여 예배드리며 부교역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도움을 얻었다. 참고 도서는 김병삼 목사의 지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서울: 넥서스Cross, 2010)와 *우리가 꿈꾸는 교회* (서울: 도서출판 진흥, 2002)이다.

1. 목회철학

만나교회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라는 표어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만나교회의 사명 선언문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가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지역과 세상을 섬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만나교회의 7대 핵심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적 감동이 있는 예배이다.[122] 만나교회는 주일 예배만이 아닌 모든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감동이 있는 예배를 제공한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 성공적인 예배의 모델을 제시하고 그 매뉴얼을 제공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둘째, 무릎으로 드리는 중보기도이다.[123] 만나교회는 중보기도팀을 운영하여 온라인/오프라인 기도요청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의 기도 요청을 수용하고 이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다. 특히 중보기도학교 등 다양한 기도 훈련의 장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육이다.[124] 만나교회 교육은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고 훈련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전문 사역자 배치, 적절한 교육 시설 제공, 장학금 조성 등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넷째, 건강하게 성장하는 나무공동체이다.[125] 만나교회의 나무공동체 사역은 건강한 나무공동체, 성장하는 나무공동체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 2020년까지 1천개의 나무공동체가 세워짐으로 1천개의 작은 교회가 이루어지는 만나교회를 꿈꾼다. 효과적인 교육을 통해 건강한 나무공동체 지도자를 세우는데도 헌신하고 있다.

다섯째, 행복을 주는 가정이다.[126] 만나교회는 작은 천국으로서의 가정을 목표로 다양한 가정 사역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남자들을 위한 맨 오브 갓(Man of

---

122) 요한복음 4:24.
123) 요한복음 14:26.
124) 디모데전서 4:6.
125) 고린도전서 12:26-27.
126) 디모데전서 3:5.

God), 마더 와이즈(Mother Wise), 결혼예비학교, 가정상담실, 부부 MBTI 등을 통해 그 목표를 성실히 이루어가고 있다.

여섯째, 지역사회에 생명을 주는 나눔이다.[127] 만나교회는 지역 사회를 향해 열린,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를 지향한다. 교회의 모든 시설을 무료로 개방함은 물론, NGO 기관인 월드휴먼브리지와 협력하여 다양한 계층과 지역의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나눔의 사역을 펼치고 있다.

일곱째, 열방을 가슴에 품는 선교이다.[128] 만나교회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선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MMP 사역을 통해 국내/외 미자립 교회는 물론 선교기관, 교육기관 등을 방문하여 그들의 필요를 돕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자원 활동을 통해 선교의 귀한 열매를 거두고 있다.

2. 교육행정이 앞서 있는 교회행정

만나교회는 교육행정이 행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는 교회이다. 모든 교회학교뿐만 아니라 전교인 대상으로 예배를 통한 교육, 성경공부를 통한 교육, 사역을 통한 교육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교회이다. 말씀 선포는 시리즈 설교를 통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설교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하여 많은 스태프들과 섬기는 이들이 노력하고 있으며, 예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자들이 은혜를 받는 것 다음으로 예배를 통한 교육효과가 있기를 바라는 교회이다. 김병삼 만나교회 담임목사의 교육철학이 예배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군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129]의 말씀에 근거하여 사도 바울이 여러 모양의 교회에 각각 알맞은 가르침으로 성장을 이루게 하였듯이, 다양한 성도들이 다양한 교육을 통해 말씀 안에서 능력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바로 만나교회이다.

만나교회의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이다.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자유롭게

---

127) 야고보서 2:16.
128) 사도행전 1:8.
129) 디모데전서 4:6.

역사하시도록 열려진 공간이다. 예배의 공간은 누구에 의해서도 제한 받아서는 안 된다. 문화적인 전제나 생각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헌신이 필요하다. 만나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수 없이 많은 헌신자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그들을 통해 이 땅 위에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나교회가 꿈꾸는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은 말보다는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데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원리를 분명하게 보여 주는 것이다.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는 목사로서 늘 어떻게 하면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가능하면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한다.

그래서 만나교회 교육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지역과 세상을 섬기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를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만나교회는 단계별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을 필한 자만이 해당 사역에 들어갈 수 있다. 또한 기본 성경공부반을 마치지 않으면 사역에 들어갈 수 없는 행정체계이다.

그 교회의 비전, 즉 담임목사의 비전에 공감하고 동의된 상태에서 사역에 들어가야지 모든 부서와 공동체가 함께 같은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기초 성경공부반은 필수이다. 또한 김병삼 목사는 교회에서 남성들을 위한 성경공부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교회가 위치에 있는 한국 야탑동뿐만 아니라 성남시 전역에 걸쳐서 남성들에게 인기 있는 성경공부를 통하여서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어른 교육은 많은 부분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만나교회의 교육행정의 특징은 바로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행정이다. 만나교회는 일반교회에서 선교지를 위한 헌금 또는 건축헌금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교회학교를 위한 헌금을 따로 받고 있다. 이 헌금은 진정 만나교회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의미 있게 쓰이고 있다. 교회의 어른들이 교회의 교육에 대한 담임목사의 철학과 비전을 이해하고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배정되는 예산 이외의 다른 헌금을 통하여서 교회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만나교회에서는 교회학교 자체적으로 찬양을 만들어 배급하고 영상팀을 운영하고 이미지와 디자인과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다. 이미 만나교회의 음악사역팀이나 디자인팀, 영상제작팀의 수준이 방송국 수준으로 가고 있다. 이것 역시 위에서 지구촌교회가 선교사를 발굴할 때 또한 파송할 때 까다롭지만 체계적으로 하는 것처럼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만나교회에서는 양보가 없다.

또한 교회의 출입이 가장 편한 장소인 1층은 어린이 전용공간이며 주일에는 그 공간에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교사들만 다닐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어른들은 지나갈 수 없다. 이러한 행정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만나교회 성도들은 없다. 교육을 위하여서 아이들을 위한 행정적 배려에 대해 동의하기 때문이다. MBTI를 통해 자신의 적성을 알고 비전과 인성의 방향을 교육하고 있으며, 영적이고 감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영성훈련 프로그램, T.D[130](만나교회 B.T.D)도 운영하고 있다.

3. 평가

만나교회의 교회행정은 한마디로 교육행정이 앞서 있는 교회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학교 운영도 교회의 교육에 대한 담임목사의 목회철학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만나교회의 교육행정은 비전과 함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교육열이 높은 분당지역에서 교회학교의 배력이 지역사회에 전해지고 있기에 아이들의 영적인 성장과 학교에서의 바른 생활을 위해서 교육행정이 올바로 세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육행정이 지역사회에 알려지게 된다면 이것도 하나의 교육행정을 통한 교회성장 및 교회 공동체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또한, 만나교회는 교회학교 헌금과 예산을 먹는 것을 위하여서는 단 돈 1원도 쓰지 않을 정도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헌금과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교

---

130) T.D는 뜨레스디아스(Tres Dias)의 약자이다. 1940년 가톨릭에서 시작된 영성훈련인 꾸르지요(Cursillo)가 개신교에 들어오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뜨레스디아스(Tres Dias)는 스페인어로 "사흘"의 뜻이다(영어로는 Three Days). 3박 4일간 독특하게 짜여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실시된다. 3일간 크리스챤의 기본이 되는 생활의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소명을 깨달아 알고 응답하는 회심의 이정을 체험하게 한다.

육행정의 체계화를 통한 성장과 질이 높은 교육의 공급이 교회성장 뿐만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는 공동체가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기에 많은 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제 3 절 분당우리교회[131]

공동체적 교회행정을 위한 사례연구 세 번째로 분당우리교회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당우리교회는 특별히 타 교회보다 인터넷 행정이 잘 되어 있는 교회라 볼 수 있다. 시대가 급변할수록 네트워크와 미디어의 발달이 눈에 띄게 급성장 하고 있다.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조차 급변하는 시대에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는 현세대에 네트워크로 교회 구성원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한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에 필요한 작업이다. 그런 의미에서 분당우리교회는 인터넷 행정이 잘 가꾸어져 있다. 먼저 분당우리교회의 목회철학을 살피고, 어떤 방식으로 인터넷 행정이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고 평가해 보고자 한다.

1. 목회철학

분당우리교회는 2002년 5월 8일에 창립예배를 드린 이후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가정을 회복시키는 교회, 청소년과 젊은이를 바로 세우는 교회, 제자 훈련하는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 등의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며 지역 사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다. 교회의 특징으로는 교회의 비전에서 알 수 있다. 분당우리교회의 비전은 첫째로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 둘째는 가정을 회복시키는 교회, 셋째는 젊은이를 깨우는 교회, 넷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이다.

첫째,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분의

---

131) 분당우리교회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 필자는 분당우리교회 주보, 교회요람, 간행물, 교회 홈페이지(http://www.woorichurch.org) 등을 참조하였으며, 2012년에 교회를 직접 방문하여 예배드리며 부교역자들과 성도들의 인터뷰를 통해 도움을 얻었다. 참고 도서로는 이찬수 목사의 지서 중 *세상에 없는 것: 되기 위해 달려가는 분당우리교회 개척일기*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3)와 *YY부흥보고서* (서울: 규장, 1999)이다.

생명력을 접촉하는 만남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한 예배의 감격이 살아 있어야 한다. 분당우리교회는 예배를 통해 죄악의 짐을 내려놓고 상한 영혼이 회복되며, 하나님을 만나서 강한 용사가 되어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신앙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확신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교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분당우리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동의 축제이다.

둘째, 가정을 회복시키는 교회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은 가정이다.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온전한 공동체가 되길 원하셨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가정이 든든해야 한다. 분당우리교회는 가정이 먼저 회복됨으로 교회도 건강해진다는 믿음으로 상한 가정을 회복시키고 건강한 가정을 더욱 더 견고히 세우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

셋째, 젊은이를 깨우는 교회이다. 현대의 젊은이들은 세속화된 문화 속에서 올바른 가치를 찾지 못한 채 오염되어 가고 있다. 분당우리교회는 다음 세대의 영적 부흥을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사랑의 교회에서 10여년간 청소년 사역을 전문적으로 담당해 온 이찬수 담임목사의 지도 아래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을 꿈꾸게 하고 양성하는 일은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한다.

넷째,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이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사회를 향한 소금으로서의 책임이다. 오늘날 힘을 잃어버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가까운 이웃에서 시작하여 멀리는 세상을 향해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크고 작은 사역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세상을 향해 선한 일과 하나님의 복음을 통한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것처럼 그 공동체를 통한 사랑의 사역과 복음의 역사가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도록 하는 것이 분당우리교회의 꿈이다.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분당우리교회는 예배가 살아있고 매시간 드려지는 예배마다 이찬수 목사의 설교와 찬양대의 찬양과 결단을 통해서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기로 유명하다. 예배 가운데 많은 치유와 회복이 있다.

2. 인터넷 행정이 잘 되어 있는 교회행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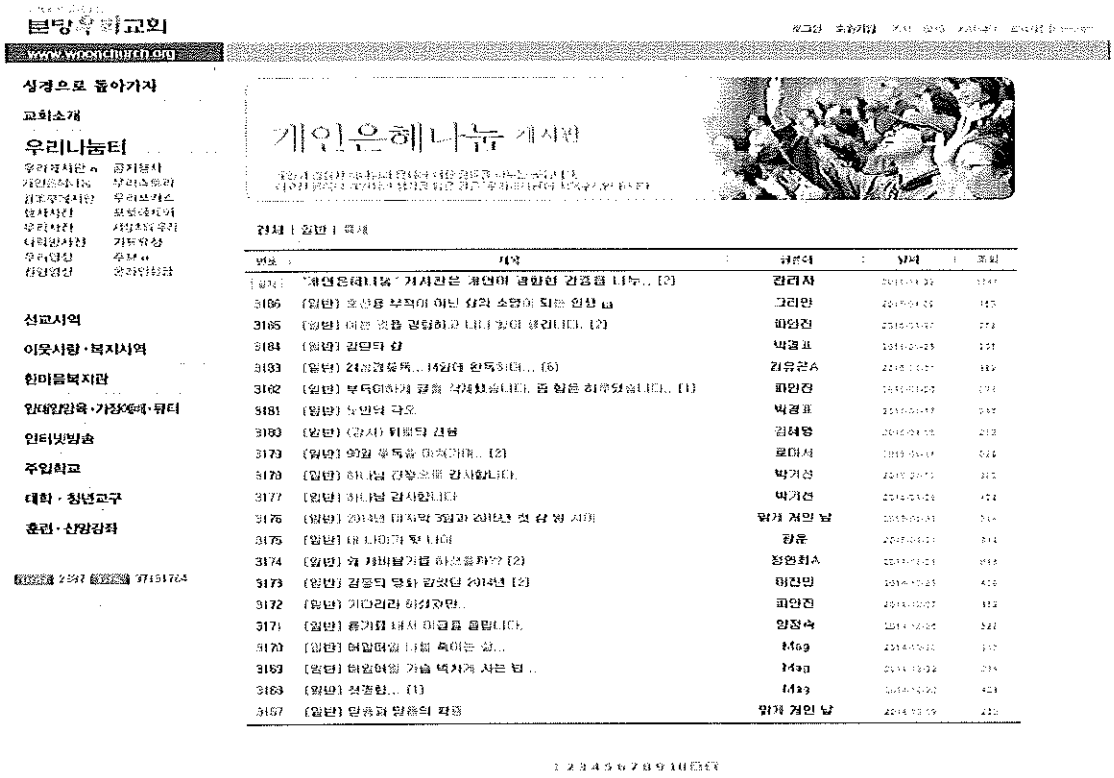
분당우리교회가 분당이라는 지역적 위치로 인해 인터넷 행정이 다른 교회보다 발달되어 있다. 21세기 네트워크 시대에 걸맞게 분당우리교회는 기술 관계자들의 헌신과 팀 사역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인터넷 행정과 홈페이지가 발달될 수 있었다. 교회 자체가 송림중고등학교 내에 있기 때문에 주중에 교회에 모여서 커다란 행사나 소소한 그룹 나눔 등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주중에 다락방 모임은 가능하면 집에서 하거나 주일에 학교 교실을 빌려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일에는 교회의 사람들이 넘치고 활발하게 움직이지만 주중에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분당우리교회로서는 꼭 필요한 것이었다.

현재 분당우리교회는 웹을 통한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으며, 주중에도 은혜의 나눔이 넘쳐나는 것이 특징이며 장점이다. 예배의 감격은 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예배로 끝나지 않는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몸을 산제사로 드리며, 매일매일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주일의 예배가 아닌 매일의 예배, 끝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이다.

일주일 내내 은혜로 사는 것은 그만큼 교인들의 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예배자로서의 삶은 결국 삶의 전도, 관계 전도를 이루어 교회 성장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감각적으로 민감한 시대에서 주일 예배가 끝난 후에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는 설교영상과 찬양영상은 분당우리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분당에 갈 수 없는 사람들(타 교회 성도들이나 분당우리교회에서 유학을 간 성도들)에게도 예배의 감격과 예배 가운데 받았던 은혜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다.

예배의 설교와 찬양 페이지에 예배에서 받은 은혜와 찔림과 죄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을 나누는 가운데 예배에서 받은 은혜가 주중에서 더욱 풍성하게 나눠고 있다. 또한 특별 새벽기도회에 대한 댓글은 전교인이 참여해서 그것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교회사역이 웹상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홈페이지만 봐도 교회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림1> 분당우리교회 홈페이지



또한 담임목사와도 웹페이지를 통하여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132] 물론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도 이 메일을 통하여서 상담하고 안부를 묻는 일들이 가능하지만 분당우리교회의 웹상에서는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쌍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웹상의 행정을 통하여서 교회는 살아있음을 느끼게 된다. 행정은 딱딱하게 굳어진 것이 아니다. 교회라는 유기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행정은 더욱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성도들과 목회자가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비록 직접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교회에 이러한 소통이 가능해진 것이 매우 고무적인 일들이다.

분당우리교회와 같은 전문적인 홈페이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목회자들은 이제는 디지털시대에서 웹페이지와 E-mail 그리고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하여서 지속적인 심방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위로할 수 있어야 한다. E-mail과 문자 메시지로 한 번 더 교회의 중요한 사항을 공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광고가 구두로 전달되기

132) 이찬수목사님 트위터: https://twitter.com/nanum153/lists/list

나 주보 등에서만 알 수 있었던 광고가 주중에도 계속해서 전달된다.

웹에서는 여러 안내도 감당하고 광고도 하며 특별 영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행사에 대한 사진이나 글들도 게시된다. 또한 재무행정과 관련지어서 온라인 헌금에 대한 안내도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직접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 헌금에 대한 부담을 해결해주고 있다. 입금방법은 십일조를 입금할 때는 본인 이름과 '십'이라는 기록을 남기고, 감사헌금 입금시에는 본인이름과 '감'표시, 기타 목적헌금을 할 때에는 본인이름과 '목적내용', 그리고 다락방 헌금 시에는 '다락방이름'을 적고 입금을 하며, 각 은행별로 계좌에 대한 안내를 해주고 있다.

기도 요청란이 있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역과 관계를 가질 수도 있으며 공지나 광고효과도 볼 수 있고 새가족에 대한 사진과 함께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으니 웹상에서 바른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교회성장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묶어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3. 평가

분당우리교회는 교회의 위치상 로컬보다는 미디어 시대에 맞게 네트워크 행정이 잘 발달되어 인터넷이나 네트워크로 교회 공동체가 효율적이며 활발하게 성장하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 행정과 교회 성장을 연관 지어 봤을 때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회를 떠나 있더라도 웹을 통하여 교회에서 행해지는 사역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교회를 떠나 있더라도 한 공동체 멤버로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 체험을 계속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돌아와서 다시 교회에 정착하기가 쉽다. 또한 웹에서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의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그리한 글을 읽고 은혜를 받고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시대에 막힌 소통에 대한 답답함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유뿐만 아니라 점점 개인화 되어가는 시대에 미디어화 되어가고 네트워크화 되어가는 시대에 인터넷 행정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분당우리교회의 교회행정은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효율적으로 성장시키기에 강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제 6 장
공동체적 교회행정을 위한 제안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교회행정을 연구하면서 교회라는 조직에 행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는 공동체이다. 머리되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에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적 입장에서 교회행정 원리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이루는 교회에서 왜 행정이 필요한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교회행정이 잘 정착된 몇 군데의 교회를 사례로 살펴보았을 때도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도 교회행정이 체계적으로 잘 조직되어 있어야 함을 볼 수 있다. 이는 무너져 있는 공동체성을 회복함에 있어서도 교회 안에 행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시해 준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공동체적 교회행정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제 1 절 공동체적 교회행정의 조직 제안

전통적으로 교회의 행정은 교역자가 리더가 되고 평신도들은 그 지체로서 순종하는 행정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러한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행정체제는 명령과 지시에 의해 움직이며 전체의 이익은 강조되면서도 개인의 능력이나 창의성은 외면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유형의 교회행정은 행사나 프로그램의 진행이 신속하고 쉽게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의사결정의 방식에 있어서 비민주적인 운영체제를 갖고 있어서 전

교인의 역할분담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나 공동체성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회행정 조직의 개선이 필요하다. 모든 교회행정 조직은 통제기구가 아니라 봉사기구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조직은 어떤 면에서는 전문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교회행정 조직은 계통조직 혹은 리더-참모조직에서 벗어나서 과제-수행그룹의 행정조직으로 전환함으로써 그 기능과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고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영성과 전문성을 고취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회행정 조직을 소그룹화 해 나가야 한다. 교회는 살아 활동하는 생명체로 정체되지 않도록 부단히 갱신되어 가야 한다. 조직은 교회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존재하고 봉사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목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 존재이유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구원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심으로 구원을 이어가셨다. 이 공동체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한다. 이 그리스도의 몸을 실현하고 나타내는 기본구조가 바로 소그룹이다.[133]

일종의 작은 세포조직으로서 공동체를 세우고 섬기는 데 있어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중요한 조직인 소그룹은 성도들이 한 몸 됨을 실제로 경험하고 지체로서의 상호발견과 교제 그리고 은사를 나누고 그 은사를 기초로 협력과 봉사가 이루어지는 유기체이다. 민주적인 리더십 스타일인 소그룹은 소그룹의 목표와 함께 어떤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 노력함으로써 그룹 구성원들 간에 상호작용이 있다.

소그룹은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간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구성원 간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그룹 구성원들 간의 상호관계를 이용한 학습이 가능하고 학습자들 자체가 교육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소그룹은 교육적인 능력이 있다.

또한 소그룹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특히 신앙공동체 안에서의 소그룹은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확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다양하게 일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기 때문으로, 소그룹 안에서 성령님께서 다양한 방향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훨씬 역동적으로

133) 이성희, *미래목회 대예언* (서울: 규장, 1998), 124-127.

일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소그룹이 관계 지향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그룹을 잘 운영하면 교인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소그룹이 모여서 대그룹이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공동체로 정체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처럼 소그룹은 대그룹의 모임에 깊이를 더해 주는 강렬한 공동체성을 제공해 준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교회행정 조직으로 소그룹의 활성화를 제안한다.

제 2 절 공동체적 교회행정의 발전을 위한 제안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근본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들의 삶과 신앙의 구세주가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핵심이다. 교회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그렇다고 하나님 중심의 교회행정이라 하여 사람을 전적으로 무시되어야 좋다는 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번 절에서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 공동체적 교회행정의 발전을 위한 제안을 몇 가지 하고자 한다.

1. 성경적인 교회행정 추구

교회의 진정한 성장과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성서적 교회론에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사실 한국교회는 보이는 성장에만 급급하여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묻지 못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교회상을 현실에 옮겨놓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비역사적인 이상주의의 환상이라 말한다. 그러나 교회의 근원에 대한 질문은 소박한 복고주의나 환원주의의 추상적인 요구가 아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역사 속에서 변천하면서 자신의 근원에 관해 묻지 않는다면, 교회의 목적과 목표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부패해져가는 교회갱신의 근거 또한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교회행정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

은 성경적인 입장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구약에서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택함 받은 공동체가 되었다고 말한다. 신약에서는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εκκλησια)'라고 부른다. 이 말은 εκ(out of) + κλησια(to call out)의 합성어로서 '불러 모으다',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134]

따라서 교회란 성도, 즉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어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신약에서 교회란 말은 예수님에 의해서 맨 처음 사용되었다.[135]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기 위한 교회행정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그 기초를 두어야 한다. 교회가 성경적 교회행정을 추구하고 발전시켜 나갈 때 교회 공동체성이 진정으로 회복되며 어떤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는 교회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질 것이다.

2. 교회행정 원리에 대한 철저한 인식필요

건전하고 지속적인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지 위해서 교회행정 원리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짧은 역사 속에서 급성장했다. 그러나 선교 100주년을 지나면서 발생한 문제점은 교회의 건전한 행정적 뒷받침이 결여되어 있음으로 교회의 성숙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 복음을 외쳐야 할 공동체가 무너졌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행정가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성경에 나타난 대로 교회의 목적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교회행정의 원리 또한 다른 곳이 아니라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 결국 공동체적 교회행정을 제대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가치와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기술은 계속해서 체워지는 부분이지만 교회행정을 바르게 이해하고 행정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교회행정 원리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필요하다. 교회행정의 원리는

---

134) 권오서, 교회행정과 목회 (서울: KMC, 2008), 16-17.
135) 마태복음 16:18.

이미 3장에서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교회행정 원리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공동체적 교회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교회행정이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하며, 인간 지향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원리에 근거해서 교회행정을 해 나갈 때 교회 공동체성은 확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3. 교회의 본질을 성취하는 교회행정 추구

공동체적 교회행정의 목표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행정은 첫째,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목적을 성취하는 도구로서의 행정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행정의 목적은 선교적인 사명을 완수하는데 두어야 한다. 교회의 성장이 목회자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상명령과 선교적 사명을 완수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행정은 하나님 중심적임과 동시에 인간 지향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교회의 모든 사역이 인간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둘째, 교회행정은 전체 교회가 책임지는 행정, 곧 살아있는 유기체로서의 행정체제가 수립되어야 한다. 교회라는 조직에 대한 정의를 다루지 않았지만 교회는 그야말로 유기적인 공동체이다. 공동체의 유기성이 사라진다면 그 교회는 죽어간다.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라져 갔다.

셋째, 교회행정은 말씀으로 사역하고 봉사하는 임무와 사명에 뒷받침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성경적인 교회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로써 교회행정은 성경적 근거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교회행정이 과학이나 기술보다는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 구성원들의 성장을 위하여 존재해야 한다.

넷째, 교회행정에 현대적인 관리도구인 컴퓨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최소한의 시간과 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교회행정은 치밀해야 하며, 체계적이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 컴퓨터의 바른 활용은 필수적이다.[136]

---

136) 이성희, *미래사회와 미래교회*, 234-235.

불과 20여년 전만하여도 교회는 문화의 선두주자였으며 교회가 사회를 이끌었다. 하지만 더 이상 교회가 사회의 선두주자라고 말할 수 없고, 문화적인 면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면에서 교회가 이제는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입장이다. 행정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교회를 위해서 소프트웨어 개발과 기술의 도입과 적용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래교회학자 레너드 스윗(Leonard Sweet) 박사는 오늘날 교회를 구세계 교회와 신세계 교회로 분리한다. 이들은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인다. 이들은 서로 다른 가치를 존중한다. 이들은 서로 다르게 성공을 측정한다. 이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고한다. 한 쪽은 주로 크고 작음의 측면에서, 다른 한 쪽은 빠름과 느림의 측면에서 생각한다. 한쪽은 책 중심이고, 다른 한쪽은 웹 중심이다. 한쪽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책을 기초로 삼는다. 다른 한쪽은 웹으로 은유와 운용 방식을 규정한다. 우리는 교회 분열의 악취와 새로운 성장의 달콤한 향기를 피할 수 없다.[137]

신세계 교회는 인쇄 시대가 끝났음을 알고 있다. 인쇄는 의사소통하게 하는 유일하고 특권적인 형식이 아니다. 신세계 교회는 새로운 목회를 전달하기 위해 웹을 이용하고, 기존의 핵심 목회를 향상시키며 교인 간의 관계를 증진시킨다.

신세계 교회의 교인들은 브라우저 위에서 살지는 않지만 마우스와 키보드를 이용한 행정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신세계 교회행정은 앞으로 많은 부분 컴퓨터를 통해서 간소화 되겠지만 그만큼 늘어나는 행정업무가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

세대가 달라진 것은 분명하다. 행정사역도 그 형식과 속도에 있어서 해 마다 다르다. 많은 프로그램이 등장하면서 교인관리, 재정관리 등 컴퓨터로 모든 교회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세대에서는 교회행정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 바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전문가의 양성도 필요하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교회행정이 올바르게 된 교회는 성장이 이루어는 것을 볼 수 있다. 교회성장은 필연적으로 전도와 선교를 가지고 올 수 밖에

---

137) Leonard 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Post-Modern Pilgrims: First Century Passion for the 21st Century World)*, 김영래 역 (서울: 좋은씨앗, 2007), 200.

없는데, 전도와 성장을 위하여 또한 새로 교회에 나오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리고, 교회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교회행정은 바르게 시행되어야 하며 전교인 차원에서 교회행정에 대한 바람직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 3 절 공동체적 교회행정의 목표와 나아갈 방향

성장하는 교회는 명확한 방향과 목표, 대상 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행정가인 목회자는 분명한 철학을 정리해야 한다. 목회철학은 선교 목적과 교육 목적을 설정함으로써 교회행정의 뒷받침을 잘하게 한다. 딘 켈리(Dean Kelly)는 보수적인 교회들이 성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교회들이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하여 더 많은 시간과 노력,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138] 그러므로 공동체적 교회행정의 목표와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기독교 신앙 이해와 영적 성장

이 목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의 본질에 근거한 것이다. 교인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이해시키고 그 신앙의 대상인 그리스도에게 삶 전체를 맡기게 만드는 것이 교회행정의 목적이며, 바로 이 점이 교회행정과 일반 행정이 다른 점이다. 영적 성장이 없이는 확신도, 회개도 없고, 새 사람도, 성화도, 구원도 불가능하다.

오늘날 교회는 영적 성장이 중시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성령이란 말은 있어도 성령이 없는 교회가 존재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처럼 영적 성장은 너무도 중요하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영적 성장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외형적인 것에만 사로잡혀 있는 교인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일상적인 행사나 또는 교회에서 하는 의식이나 순서가 영적인 것으로 아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영적이란 결코 종교적인 풍습이 아니고 형식이나 의식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

---

138) Lloyd M. Perry, *목회자와 교회행정 (Getting the Church on Target)*, 김영백 역 (서울: 보이스사, 1987) 51.

라 내적이고 복음적이며 예수 그리스도적인 것을 말한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변화를 말한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예수와는 멀고 세상과는 가깝게 지냈던 그 동안의 삶에서 떠나는 일을 말한다. 또 유교적이고 불교적이며 무속적인 생활습관에서 벗어나 참 신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가 행정을 한다는 이유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것이 없이 서식이나 만들고 조직이나 하고 운영하는 것을 행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행정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행정 하면 일반적인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올바른 교회행정의 목적과 방향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인 복음을 먼저 깨닫는 일이다. 또한 더 나아가서 교회의 영적인 성장의 바탕 위에 이루어지는 행정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내면적인 교회의 성장은 외적인 성장만큼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는 몇 가지 정도의 프로그램만으로 좋은 분위기를 연출하여 많은 교인들이 모이면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 그러면서 그것이 무슨 성장인 줄 아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생활의 모든 경험과 행동은 이 내적인 목표를 달성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되기 때문이다.

2. 하나님 중심적인 삶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이 선택한 공동체라는 교회의 본질에 근거한 것이다. 교회행정의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다. 교회행정 본질 자체가 이것이며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설 자리가 없다. 교회행정 하면 마치 프로그램 중심(program-centered)으로 아니면 목회자 중심(pastor-centered)으로 아니면 장로 중심(elder-centered)으로 또는 기관 중심(institution-centered)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행정의 전부인줄 안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중세교회와 다름없다.

진정한 교회행정은 하나님 중심(God-centered)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수없이 강조한 교회의 활성화나 행정의 필요성도 합리적인 조직 운영이라는 일차적인 목적이 있지만 그것은 지극히 부수적인 것이지 결코 주된 것이 될 수 없다. 정말 중

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139]

그런데 일반적인 인식은 여전히 외형적인 행정에 대한 고정관념을 쉽게 떨쳐 버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교회 행정을 하는 목회자는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인지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 그리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타난 원리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알려주며 설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목회자는 보다 지성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세상 전체를 바라보며 생각할 줄 아는 신앙을 가르쳐야 한다. 열성적이고 뜨거운 것도 좋지만 신앙을 너무 감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성숙한 신앙이라 할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성도들은 무엇보다 말씀과 진리 안에서 또 생활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정립해 나가는 의식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한국교회는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지금도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사이의 흑백논리 차원에서 아직도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폐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과 생활은 평준화가 되지 못하고 신앙에 대한 빈부의 차도 극심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신앙의 격차가 커서 말씀연구나 바른 신앙의식으로 그 간격을 좁히기 위해 다같이 노력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것을 극복하는 일은 등한시하고 기도원이나 집회 같은 곳에 가서 감정에 호소하는 신앙에만 매달리려는 사람들이 있다.

또 작은 일을 소중하게 생각지 않고 오직 큰 일, 큰 것만 중시하는 풍조가 있는데 이는 세상을 따라가는 습관에서 나온 결과물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다. 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이끌었으나 지금은 교회가 시대에 따라 다닌다. 그저 교회는 커야하고 하나님조차도 커야 하며 교회의 지도자들도 커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치 일류 학교나 일류 직장을 찾듯 사람들은 일류 교회를 찾는다. 이 모든 원인은 교회가 신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고 말씀을 편파적으로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을 온 교인들이 힘을 합쳐 함께 수행할 때 나타난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행정은 교인들 각자가 다 선교사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들의 가정이나 직장, 일터가 곧 파송지라는 것을 알게 하고 실제로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일이다. 또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

---

139) 권오서, *교회행정과 목회*, 100-111.

닫고 그것을 인식하게 된 교회 내의 모든 기구나 부서들이 상호협력을 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하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은 평신도들을 세울 때 목회자가 목회 하는 것을 관망이나 관전만 한다든지 체점만 하기 위해 세워 둔 것이 아니다. 이제는 교인 한사람, 한사람이 다 제사장이 되어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해 나가야 한다. 즉 교회행정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성도 각자가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주는데 있다.

3. 교회와 성도의 신앙 성숙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는 믿음의 형제들이 모인 교회 안에도 때로는 교회를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며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가끔 일어난다. 이런 일을 일으키는 주체적인 세력들을 보면 교회를 이끌어 가야하는 지도자급들이 중심이 된 경우가 많다. 그런데 뻔뻔하게도 그들은 그런 파괴적인 일을 연출하고도 법을 들먹거리며 자신들의 일을 합리화하려 한다. 그래서 법을 모르는 많은 교인들은 그저 앉아서 당하는 일이 종종 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을 바로잡고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며 제제하기 위한 시스템이 바로 교회행정이다.[140]

이런 일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첫째, 교회는 인간의 지성과 합리성을 배격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았다. 그런데 그것을 신앙과 결부시켜 자기의 모든 지성과 사고력까지 죽이는 것만이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지름길이라고 가르친다면 그들은 사람의 종이 되고 만다. 교회는 단순한 종교심을 충족하는 자생적인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아 사명을 감당해 가는 영적인 성도들이 모인 거룩한 터전이다.

이런 일을 위해서 교회가 이제는 보다 정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 우리 주위에는 무분별하게 여기 저기 난립하여 오합지졸처럼 흩어진 교회들이 많은데 참으로

---

140) 손병호, *교회 행정학 원론*, 100-101.

이들을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나가야만 하는가 하는 아쉬움과 함께 이제는 우리 교회들이 양적인 성장으로 숫자 불리기에만 급급해서는 안 될 때라고 믿는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하나님의 핏 값으로 사신 교회가 목회자 개인의 명예와 권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둘째, 교회는 사람의 기본 인권을 무시하면 안 된다. 사람은 다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도덕적이고 책임 있는 존재들이다. 사람 위에 사람이 있을 수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기 때문에 오직 사람을 다스릴 이는 창조주이신 하나님뿐이시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인이신 사람의 고귀한 인격체를 다루는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고 그르며 무엇이 진리이고 비 진리인가를 정확하고 진실하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먹구구식의 전달 방법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행정의 역할이다.

셋째, 하나님 말씀의 생활화이다. 이 말은 가르치고 익혀서 행동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날이 갈수록 사상과 이념이 많은 시대 속에 살면서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는 가치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세대들이 없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에 도전을 받는다고 하여 맥을 못 추거나 기를 못 부릴 정도의 진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거룩하고 고귀하며 크고 유일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 앞에서는 약하고 미련한 것이 되고 만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는 곳이 교회인데 이 진리가 살아 숨 쉬는 교회를 경시하고 교회 밖에서 오히려 교회를 비판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할 것이다.

교회행정의 참된 목적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교회가 교회 구실을 하게 하는데 있다. 즉 교회행정은 교회가 무사 안일만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이 고백되고 말씀이 선포되게 하며 예수를 증거 하는 일을 하게 한다. 또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교회를 성장시켜주는 일을 하며,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의 성장과 회복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행정가인 목회자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 하기 위해 소명의식을 갖고 교인들을 가르쳐야 한다. 이것이 바로 바람직한 공동체적 교회행정의 목적이며 나아갈 방향인 것이다.

제 4 절 공동체적 교회행정을 위한 행정가로서의 목사 역할 제안

교회행정의 새 지평을 넓히는 분야는 목회자의 책임이 크다. 봉건 사회의 종교지도자들은 그들의 많은 시간을 종교의식 세계에서 보내고 그들이 살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는 외면하였다. 고대 종교인들은 그들이 성전에서 외우고 명상하던 교리를 현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사역하려는 책임감을 느끼지 못했다.[141] 이제는 좀 더 효율적인 목회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목사는 유능한 행정가가 되어야 한다.

1. 행정가로서 목회자의 자질

유능한 행정가가 되기 위해 목회자는 첫째,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구심점이 되어야 할 목회자가 존경 받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한다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노력을 효과적으로 모으지 못할 것이다. 존경받기 위해서 목회자는 우선 신실하고 본받을 만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둘째,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어야 한다. 자신 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에 대한 태도나 타인에 대한 태도가 항상 한결 같아야 한다. 또한 정서의 안정은 결국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한다.

안정된 정서는 걱정스러운 일이 닥쳐도 당황하지 않는다.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방안을 찾고자 힘쓴다. 서둘지 않고 침착하게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셋째, 자신의 일에 대해 열정적이어야 하며 동시에 겸손한 사람이어야 한다. 자신의 일에 열정적인 사람은 근면하고 성실 할 수 있다. 또한 자신감을 가지고 일한다. 자신감은 과감한 결단력을 발휘하게 되고 리더로서 행정의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

넷째, 탁월한 행정가가 되려면 자기 특성과 장점을 잘 살려야 한다. 자기의 특성과 장점을 알면 그 만큼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행할 수 있다. 이는 이미 성공의 고지

---

141) 방지형, *성경적인 목회 행정학* (서울: 성광문화사, 1991), 195.

에 오른 것이나 다름없다.

다섯째, 창조적이어야 한다. 창조적인 사고에서 능력이 생긴다. 창조성이란 모든 일에 주도권을 갖고, 기획하고, 조직을 하고,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창조적인 목사는 일이 끝날 때까지 여러 가지 자료를 구하고 분석하고 도움이 될 만한 방안을 모색한다.

여섯째, 남을 지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자신에 대해서는 자제할 줄 알아야 하고 자신의 일을 위임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지도자란 자신의 모든 일을 다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아래 사람에게 적절하게 일을 맡길 줄 아는 사람이다.[142]

2. 담임목사와 부목사의 행정적 역할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 활동하는 가시적인 조직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교회의 조직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파하느냐에 집중되어 있다. 복음을 전파하며 공동체라는 조직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특히 교회의 리더인 담임목사와 부목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담임목사와 부목사의 관계는 깊은 애정과 신뢰와 도덕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담임목사와 부목사의 관계의 밑바탕에는 복음에 대한 열정과 주님의 사랑이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 복음의 열정과 사랑은 담임목사와 부목사의 관계를 인간적 관계에서 초월하여 영적인 부부와 같은 신뢰와 깊은 애정의 관계로 나아가게 한다. 나아가 공동체를 효율적으로 세우기 위한 교회행정에도 원활하게 한다.

---

142) 손병호, *교회 행정학 원론*, 241-285.

가. 담임목사로서의 행정적 역할

담임목사는 교회의 리더이다. 교회의 리더인 담임목사의 역량은 성공적인 목회와 공동체를 세워가는 중요한 요인이다. 교회행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담임목사와 부목사의 협력적 목회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담임목사로서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담임목사는 교회의 리더이기 때문에 행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 리더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행정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

둘째, 사역자들과 협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교회를 위해 부름 받은 사역자 사이의 협력적인 관계는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절대적이다. 그러므로 담임목사는 창조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143] 담임목사는 부목사를 단순한 고용인이 아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로 인정해야 한다.

셋째, 리더로서 부목사들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담임목사는 리더이기 때문에 간혹 조직 안에서 부목사의 인격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단지 고용된 비서나 사무원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만약 담임목사가 부목사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부목사의 인격은 담임목사뿐 아니라 평신도로부터도 존중될 수 없다.

넷째, 사역자들의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개발해 주어야 한다. 담임목사가 자신의 과도한 업무 가운데 단순한 업무를 부목사에게 일임하기 위해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 부목사의 전문성이나 그의 창의성은 사장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담임목사는 사역자들의 능력을 최대한 보장함으로 사역자들이 자유롭게 능력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는 공동체를 성장시키고 교인들에게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사역자들과 대화를 꾸준히 지속해야 한다. 담임목사의 권위적인 태도는 서로간의 대화를 단절시키는 요인이다. 권위적인 담임목사는 모든 사역자들의 대화를 무시한다. 그러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모든 교인들과 사역자들 간에 가능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정보 교환제도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 의견교환이나 정보교

---

143) 박근원, *오늘의 목사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198-199.

환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144]

나. 부목사로서의 행정적 역할

교회행정에 있어서 부목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담임목사에 비하여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담임목사를 보조하는 위치에서 부목사로서의 전문적인 역량과 영성 그리고 인격은 성공적인 공동체를 세워가는 요인 중에 하나이다. 담임목사와 함께 부목사는 교회행정에 커다란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부목사로서의 역할을 다음과 같다.

첫째, 담임목사의 협력 목회자임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물론 담임목사도 부목사를 협력 목회자로 인정해야 한다. 담임목사의 협력적 자세는 부목사를 동역자로 높이는 것을 말한다면, 부목사가 담임목사에 협력한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조력자로서의 자세를 말한다.

부목사는 결코 담임목사가 아니다. 공동체의 지도자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공동체의 일원으로 리더인 담임목사를 뒤에서 보좌하여 성공적인 목회를 위해 협력하는 위치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행정의 질서이다. 이런 관계가 올바로 세워질 때 행정을 통한 교회 공동체는 든든히 설 것이다.

둘째, 부목사는 항상 배움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배움이란 부목사뿐 아니라 모든 사역자가 갖고 있어야 할 자세이지만 특히 부목사는 적극적인 사고로 배움의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부목사는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자신들이 맡은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보다 자신의 영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 한다.[145] 부목사의 전문성은 교회행정에 있어서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셋째, 부목사는 목회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부목사는 자칫 담임목사나 교회에 소속되어 일하는 직업인이 될 수도 있다. 부목사는 기능적인 전문인이기 전에 하나님의 양떼를 위해 부름 받은 목회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물론 현실적으로 부목사의

144) 김연택, *21세기 건강한 교회* (서울: 도서출판 제자, 1997), 423.
145) Paul W. Powell, *교회성장의 실제와 사례 (The Nuts and Bolts of Church Growth)*, 천복현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5), 134.

목회적 활동의 범위에 많은 제약이 있다. 그로 인해 의기소침하여 움츠려들고 자괴감에 빠져 영적 목회자로서 위치를 상실하기도 한다. 그래서 교회를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기도 한다.

현실적인 목회 환경이 부목사의 목회의 영역에 많은 장애가 있어도 부목사는 언제나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담임목사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영적 소임을 다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담임목사와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교회행정을 바르게 세우는 길이고 공동체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길이다.

제 7 장
결 론

교회는 회개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세계의 시민이 되고자 찾아온 무리들로서의 공동체이며, 하나의 특수한 사회단체이다. 이러한 특수단체는 행정과 체제, 그리고 조직체를 통해서 와해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으로 구심점을 삼고 하나의 유기체가 치밀한 조직과 구성을 통해서 성장되듯이 교회 역시 성장되어 가야 될 공동체인 것이다.

어떤 개인이나 단체든지 행정과 조직 그리고 제도를 무시하고는 어떠한 훌륭한 결실을 가져오기는 불가능하다. 역사적으로 그것이 증명되었다. 현대 교회에서는 가능하면 교회의 행정 테두리 안에서 목회자는 목회하고 싶어 하고 평신도 사역자는 사역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오늘날 목회자와 대다수의 교회는 교회성장을 위해서는 전력을 기울여 총동원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우기 위한 교회행정은 무관심할뿐더러 소홀했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건강한 교회의 성장에 한계를 가져오게 되었고, 심지어 교회분열까지 자아내게 된 현실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곧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하나 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교회행정가인 목회자가 교회성장과 교회행정의 문제를 동시에 다루어 나가는 과제를 제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교회행정가인 목회자도 중요하지만 교회행정의 모든 대상이 되는 교회의 구성원들에게도 기본적인 행정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고 협조가 필요하다. 이는 곧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히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본 논문에서 성도간의 연합된 하나의 유기체요, 동시에 그리스도

를 미리로 해서 은사와 초자연적 능력을 공급받는 유기체로서의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교회행정을 언급하였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교회행정을 논하기 위해 먼저 연구동기와 목적, 방법을 살펴보았고, 교회 공동체성의 본질과 목표, 교회 안에서 공동체성의 상실의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교회의 본질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숙과 조화를 목표로 성도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통해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여러 상황적 영향과 현대인들의 종교관의 변화로 공동체가 점점 해체되어 가고 있고 교회가 세상을 향한 공동체적 대항문화도 약화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교회행정을 제시함으로 교회행정이 무너진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다.

교회행정의 성경적 입장에서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를 조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회행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구약과 신약성경에 나타난 교회행정을 통해서 살펴 볼 수 있었다.

또한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유기적 관계에서 유기적인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있어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교회행정이 필요하다. 여기서 교회행정의 필요성을 논하기에 현 한국교회 행정의 상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니, 주로 목회자의 독자적인 행정으로 인해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이것은 결국 한국교회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성을 깨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먼저 목회자의 교회행정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훈련이다. 왜냐하면 잘 이루어진 교회행정은 교회 공동체를 효율적이게 하며, 교회 공동체를 견고히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체적 교회행정의 나아갈 방향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행정의 원리를 철저히 인식하고 교회의 본질을 성취하는 교회행정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로인해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하나님 중심적인 삶,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 교회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본 논문을 통해서 논하였다.

오늘날의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산업혁명 시대의 100년 변화에 비해 최근 5년 안의 변화가 더 빠르게 느껴진다.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 교회 공동체성의 진정한 회복과 교회의 성장은 교회 사역이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작용해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필자는 본 연구를 통해서 교회행정이 교회 공동체성 회복과 성장의 열쇠라고 보는 바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행정에 대한 내용을 약술하였고, 교회행정이 잘 되어 있는 교회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행정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앞으로의 목회는 과거와는 다르게 구체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한다. 졸속행정이라는 말이 교회에서 더 이상은 들리지 않도록 교회도 잘 준비해야 한다. 작은 교회일수록 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올바른 교회행정의 원칙 없이 그저 실력 있는 목회자나 행정가에 의해서 예산 집행이나 인사행정이 이루어진다면 자칫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른 누군가에게로 옮겨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행정은 바른 원칙 안에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과 같이 연구를 마치면서 아쉬움이 남는다면 다음과 같다. 지속적으로 교회행정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단을 넘어서서 교회의 법이나 행정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 행정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헌법이 안정된 기준을 제시하는 상태에서 행정이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법과 행정이 준비되어야 한다. 또한 신학교에서도 법과 행정제도에 대한 세부적인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신학생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수가 회의 진행이나 행정 처리에 관한 것들을 잘 알지 못하고 졸업을 한다. 그저 학교에서 공부만 하고 각자 섬기는 교회에서 그들의 삶을 바쳐 사역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졸업하게 되고 목회 현장에 나가 교회에서 사역자로 교회행정의 리더로 사역을 감당하다보니 졸속행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목회자와 장로, 목회자와 리더들, 목회자와 교회 구성원들 간에 다툼이 쉽게 일어나고 교회 공동체는 화합이 아닌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신학교나 교회에서 목회자 양성과 교회의 올바른 행정을 위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신학교에서 교회행정이 필수과목으로 꼭 이수해야하는 과목이 되어야 하겠고 목회 현장에서도 끊임없이 바른 행정교육과 학습이 있어야 한다. 교회행정

에 관한 세미나가 활성화되면 더욱 좋겠다. 교회에서의 바른 행정의 실천이 곧 한국 교회의 성장과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며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는 길이다.

또한 지속적인 교회행정을 연구함에 있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현 시대가 멀티미디어의 시대라는 사실이다. 멀티미디어들은 21세기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 가져온 엄청난 산물이다. 이것은 사회의 문화를 빠른 시일 내에 급격하게 변화시키므로 이제 멀티미디어는 기술 이상이다. 또한 미디어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되어 가고 있다. 그렇기에 멀티미디어의 활용은 기술의 단계를 넘어 신학과 목회사역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변화된 목회환경에서 효과적인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멀티미디어 사역이라는 전문 사역을 고려해야 한다. 즉 교회는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통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변화된 문화 환경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복음 메시지를 가공하여 전할 문화사역자와 미디어사역자를 발굴하고 인터넷 선교사를 파송해야 한다. 이렇게 21세기 멀티미어 시대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 꾸준한 연구와 멀티미디어 시대에 맞는 교회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공동체성에 있다. 참교회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가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 교회행정에 대한 더 깊은 연구가 계속되어지길 바라며 또한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새로운 다양한 방법들도 앞으로 끊임없이 연구되어지기를 소망한다.

참고 문헌

1. 국내 서적

강대기.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가능한가*. 서울: 아카넷, 2001.

강병도. *호크마 종합주석* 1. 서울: 기독지혜사, 1992.

교회문제연구소. *오늘의 한국교회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엠마오, 1987.

권오서. *교회행정과 목회*. 서울: 도서출판 KMC, 2008.

김득용. *현대교회 행정학신강*.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1992.

김병용. *열린 신학 바른 교회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7.

김병삼.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서울: 넥서스Cross, 2010.

_____. *우리가 꿈꾸는 교회*. 서울: 도서출판 진흥, 2002.

김석한. *교회행정학 개론*. 서울: 도서출판영문, 2004.

_____. *교회행정학*. 서울: 성지출판사, 1992.

김연택. *21세기 건강한 교회*. 서울: 도서출판 제자, 1997.

김현진. *공동체 신학*. 서울: 애영커뮤니케이션, 2000.

노정현, "교회행정론." *성서와 현대목회 제 2집* (1990): 443-448.

류장현. *포스트모던 사회와 교회*. 서울: 프리칭아카데미, 2006.

문석호. *한국교회와 공동체 운동*. 서울: 줄과 추, 1998.

문희석. *세시대 세결단*.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974.

박경완. *교회행정*. 서울: 일정사, 1992.

박근원. *오늘의 목사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_____. "현대교회와 개방적 목회." *기독교사상 제239호* (1978): 91-102.

박두헌. *현대교회행정학*. 서울: 교회교육연구원, 1991.

박영철. *셀교회론*. 서울: 요단출판사, 2006.

박완신. *교회행정론*. 서울: 기독교문사, 2005.

박제호. *21C 현대교회행정*. 서울: 비전북출판사, 2007.

_____. *교회행정학*. 서울: 진흥, 2004.

박종기. *새신자를 정착시켜라*. 서울: 영문출판사, 1998.

방지형. *성경적인 목회행정학*. 서울: 성광문화사, 1991.

손병호. *교회 행정학 원론*. 서울: 유앙게리온, 2000.

_____. *교회 정치학 원론*. 서울: 양서각, 1984.

송인규. *성경은 공동체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서울: IVP, 2002.

송천호. "기획연재3: 21세기를 맞이하는 교회갱신." *현대종교* 235 (1993): 134-139.

신용하. *21세기 한국사회와 공동체 문화*. 서울: 지식산업사, 2004.

_____. *공동체 이론*.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7.

양교철, *교회와 행정*. 서울: 쿰란출판사, 2005.

양창삼. *교회행정학(현대인을 위한 신학총서1)*. 서울: 대한예수교장로교총회, 2011.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이기춘. "한국교회 목회구조 갱신의 방향." *신학과 세계* 8 (1982): 514-538.

_____. *한국적 목회신학의 탐구*.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출판부, 1991.

이동원, 진재혁. *아름다운 동역: 동역으로 펼쳐가는 하나님 나라*. 서울: 규장, 2011.

이무웅. *목회행정*. 서울: 좋은땅, 2008.

이성희. "교육목회를 위한 행정-교회 행정의 성경적 이해." *교육교회* 362 (2007): 14-19.

_____. *교회행정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0.

_____. *미래목회 대예언*. 서울: 규장, 1998

_____. *미래 사회와 미래 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이요섭. *현대인을 위한 교회행정*. 서울: 하늘 기획, 1999.

이원규.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친 교회성장론에 대한 임상적 평가 (한국교회 성장 평가와 2000년대 비전2)." *목회와 신학* 56 (1993): 41-53.

이정일. *교회의 구조행정론*. 서울: 범우사, 1990.

이종성. *교회론*. 서울: 한국기독교학술원, 2001.

이찬수. *세상에 없는 것: 되기 위해 달려가는 분당우리교회 개척일기*.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3.

_____. *YY부흥보고서*. 서울: 규장, 1999.

임택진. *목회자가 쓴 목회학*.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육부, 1990.

장중열. *교회성장과 선교학*. 서울: 성광문화사, 1978.

전호진. *선교학*.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85.

정일웅. "한국교회 정치.행정구조의 개선방향." *빛과소금* 55 (1994): 80-88.

조동진. *교회 행정학*. 서울: 크리스챤 해럴드, 1981.

천병욱. *교회행정의 원리와 실제*. 부천: 서울신대 출판부, 1982.

최낙중. *목회자가 쓴 교회행정*. 서울: 기쁨, 1999.

최승호. *21세기 한국교회의 비전*. 경기: 대장간, 1998.

최홍석. "성경적인 교회론의 정립을 위한 규범 연구." *신학지남* 265 (2000): 142-156.

홍의표. *현대 교회 행정학*. 서울: 보문출판사, 1996.

홍정근. "교회에 맞는 교육행정은 어떤 것인가." *교육교회* 260 (1998): 42-47.

황성철, *교회정치 행정학*.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4.

2. 번역 서적

Banks, J. Robert. *바울의 공동체 사상 (Pual's Idea of Community)*. 장동수 역. 서울: IVP, 2007.

Calvin, John. *기독교강요 제4권*. 김종흡 외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Easum, M. William. *교회성장 핸드북 (The Church Growth Handbook)*. 안승철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Groome, H. Thomas. *기독교적 종교교육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이기문 역.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교육부, 1983.

Küng, Hans. *교회란 무엇인가 (Was Ist Kirche?)*. 이홍근 역. 서울: 분도출판사, 1978.

Lindgren, Alvin. *교회개발론 (Foundation for Purposeful Church Administration)*. 박근원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5.

Moltmann, J.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Kirche in der Kraft der Geistes)*. 박봉랑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3.

Moyer, E. S. *인물중심의 교회사 (Great Leaders of the Chrisian Church)*. 곽안전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Perry, Lloyd M. *목회자와 교회행정 (Getting the Church on Target).* 김영벽 역. 서울: 보이스사, 1987.

Powell, W. Paul. *교회성장의 실제와 사례 (The Nuts and Bolts of Church Growth).* 천복현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5.

Simson, Wolfgang. *가정교회 (Houses That Change the World: The Return of the House Churches).* 황진기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5.

Smedes, B. Lewis. *바울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사상 (Union with Christ).* 오광만 역. 서울: 여수룬, 1991.

Snyder, A. Howard. *그리스도의 공동체 (The Community of the King).* 김영국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2.

Sweet, Leonard.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Post-Modern Pilgrims: First Century Passion for the 21st Century World).* 김영래 역. 서울: 좋은씨앗, 2007.

Vincent, Thomas. *성경 소요리 문답 해설 (The Shorter Catechism Explained from Scripture).* 홍병창 역. 서울: 여수룬, 2004.

Warren, Rick. *목적이 이끄는 삶 (The Purpose-driven Life).* 고성삼 역. 서울: 디모데, 2002.

Webber, E. Robert. *복음주의란 무엇인가? (Common Roots).* 홍성국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9.

Willard, Dallas. *마음의 혁신 (Renovation of the Heart).* 윤종석 역. 서울: 복 있는 사람. 2003.

3. 외국 서적

Arthur, M. Adams. *Pastoral Administration.* Philadelphia, PA: Westminster Press, 1964.

Dale, Robert. *Church Administration Handbook.* Nashville, TN: Broadman Press, 1985.

Edwards, H. Richard. *A Person-Minded Ministry*. Nashville, TN: Cokes bury Press, 1940.

Lindgren, J. Alvin. *Foundation for Purposeful Church Administration*.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65.

Minear, Paul. *Images of the Church in the New Testament*. Philadelphia, PA: Westminster Press, 1960.

Newbigin, E. L. James. *The Household of God: Lectures on the Nature of the Church*. New York: Friendship Press, 1954.

Simpson, D. P. *Cassell's Latin-English English-Latin Dictionary* (London: Cassell & Co., 1968), 16.

Tidwell, A. Charles. *Church Administration Effective Leadership for Ministry*. Nashville, TN: Broadman Press, 1985.

4. 논문

강호철. "목회자에 대한 평신도의 갈등 분석과 목회적 해결방안-예수교대한성결교의 평신도를 중심으로." 성결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권귀선. "교회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소그룹 활성화 전략: 하늘중앙교회를 중심으로." 풀러신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권상석. "담임목사의 목회철학과 교회성장." 풀러신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김윤환.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목회전략: 하나교회를 중심으로." 풀러신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김장교. "교회공동체성 회복과 목회적 전략: 서성로교회 사역을 중심으로." 풀러신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김종원. "건강한 교회를 위한 효과적인 목회전략: 포곡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풀러신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도영철. 교회성장에 있어서 목회자 역할에 관한 연구: 정읍지역3개 교회를 중심으로. 호남신학대학교 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문석호. "한국교회의 공동체적 삶에 대한 연구." 풀러신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박성규. "전통적인 교회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목회전략: 부전교회를 중심으로." 풀러신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배동윤. "교회성장에 있어서 목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아세아연합 신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4.

서동훈. "교회내 갈등해결을 위한 목회지원방안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윤재환.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관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진해중앙교회를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이경종. "목회리더십을 통한 정체된 교회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풀러신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정재영. "한국교회 소집단 운동의 공동체성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정해용. "현대교회 부흥과 목회자의 리더십." 풀러신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하해원. "건강한 교회를 위한 효과적인 목회전략: 반여중앙교회를 중심으로." 풀러신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Vita of
EUN WOO LEE

Present Position:

Associate Pastor of Bethel Korean Church

Personal Data:

Birthdate:	April 14, 1973
Marital Status:	Married
Home Address:	124 Agostino, Irvine, CA 92614
Denomination:	Presbyterian
Ordained:	Ordained Pastor

Education:

Th.B.:	Daeshin University in Daegu, Korea, 1998
M.Div.: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in Seoul, Korea, 2002
M.A.:	Keimyung University in Daegu, Korea, 2006
D.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2015

Personal Experience:

2012 to Present:	Associate Pastor Bethel Korean Church, CA, USA
2007 to 2011:	Associate Pastor Antioch Presbyterian Church
2003 to 2007:	Associate Pastor Daegu Ayang Church